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realty.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빅데이터 스타트업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보스톤 진출

벤처 투자 받아 2013년 창업, 한국서 연매출 20억원 규모 미 법인 캘리포니아에서 시장환경 나은 보스톤으로 이전 테크 잡지 미국내 가장 전망있는 100빅데이터 업체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에너지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가 보스톤으로 미국 현지법인을 이전해 본격적인 미 동부시장 공략에 나섰다. 인코어드는 스마트 미터를 설치해 가정용



이호준 본부장이 가정용 스마트미터를 들여보이며 소비자들에 에너지 사용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롯한 사업체의 전력 사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소비자들이 전력 절감을 실천토록 하는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테크 잡지 CIOReivew는 인코어드를 미국내 가장 전망있는 빅데이터 솔루션 제공 업체로 선정기도 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실리콘 벨리에 미국 법인 (Encored Technologies USA, Inc.)을 설립했으나 시장 환경이 보스톤을 비롯한 뉴욕 등 미 동부 지역이 낫다는 판단하에 보스톤으로 이전해 설립했다. 인코어드는 이전에 완료되는 9월 첫주에 보스톤 미주법인 본사설립을 알리는 오픈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벌링톤 소재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이호준 총본부장은 “서부의 경우 전력회사들이 성능은 본사 제품에 비해 떨어지지만 스마트 미터를 대부분 설치했다. 또한 성능이 좋지 않은 회사들이 나쁜 인식을 심어놓고 사라지는 바람에 설득도 힘들었다. 반면 미 동부는 대부분이 아날로그 미터를 사용하고 있어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 시민협회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올해 들어 첫 무료 시민권 워크샵을 개최한다.

시민협회는 과거 분기별 워크샵을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8월 단 한 번 워크샵을 개최했다. 따라서 올해에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시민협회는 워크샵을 통해 참석자들의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며, 변호사들이 기재사항과 관련된 문의의 답하고 최종 서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서류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워크샵에 참석하는 한인들은 영주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950

1.617-424-8956

IACE TRAVEL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에나 정

주최 · 콘도 · 비지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Direct: 617.642.5670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 보스톤지역 유학생들 일자리 창출할 터

▶▶1면에 이어서

노스이스턴 대학 김용빈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 본부장은 이미 보스톤 지역과 인연이있다. 이 본부장은 “보스톤은 스타트업의 성지라 불릴 정도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 미국내 스타트업하기 좋은 지역 1위로 뽑혔다. MIT 등 주요 대학의 인재도 많은 곳이기도 하다.” 고 말하고 “보스톤은 공부했던 노스이스턴이 위치한 곳으로 친숙하기도 하다” 고 밝혔다.

벨링톤 노스이스턴 대학 연구센터에 자리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는 현재 본부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설립준비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호준 총본부장은 “지금은 적은 수로 출발하지만 곧 많은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므로 한인 유학생들이 미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고용 창출도 이를 생각” 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구인사이트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종용 대표가 설립한 인코어드는 현재 한국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본금 65억원에 현재 매출 연 20억 규모로 4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IoT기반의 스타트업 회사다. 최종용 대표(59)는 LG 산전의 대표를 지내다 은퇴한 후 3년전

인 2013년 창업했다. 이호준 총본부장은 “인코어드가 세계 최초의 스마트 미터를 개발해 벤처 캐피탈 ‘포메이션 8’, 조지 소로스 등의 투자를 유치했다” 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LG 유플러스와 손잡고 IoT기획상품인 개스미터, 도어락 등과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인코어드의 스마트 미터는 가정용, 소규모 상업용 그리고 대형 빌딩용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전력회사에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부착한 미터와 달리 스마트 미터는 소비자가 전력 사용 형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가정용 스마트 미터를 부착하면 스마트폰에 달린 앱을 통해 하루중 언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 등을 끄는 경우 전력 사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력 절감의 행동을 취하도록 행동패턴 변화를 이끌어 내 환경까지 생각토록 하는 제품이다.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는 현재 각 가전기기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력 사용량까지 표시하는 기술인 NILM(non Intrusive load



빌딩용 스마트 미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컴퓨터 화면



사무실에서 설립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

Monitoring) 기술을 80-90%정도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를 곧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빅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전력 수요

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editor@bostonkorea.com

## 시민권 신청 시작부터 최종 서명까지 무료로 상담

▶▶1면에 이어서

이름, 이민국에 송부할 시민권 신청료(\$595)와 지문 채취료(\$85) 총 \$680의 개인수표 혹은 머니오더(Payable to 'USCIS'), 미리 기입한 시민권 신청서(N-400)를 준비해 가야 한다. 18세 미만은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N-400)과 설명서는 [www.uscis.gov](http://www.uscis.gov) 에서 'Immigration Forms' 을 클릭하고 'forms and fees' 를 선택한 후 화면아래로 내려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 중 음주운전 등 전과, 불법체류 사면자들의 신청에 관한 사전 문의는 이경해 시민협회장(508-962-2689) 또는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에게 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보스톤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http://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mailto:Steven@stevenkimlaw.com)

#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에 주지사 참석

한인회의 주정부와의 밀접한 관계가 큰 역할 한듯  
올 11월 주지사 선거 앞두고 달아오른 분위기도 반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한인회가 개최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연직 주지사가 참가했다. 직접 참가한 마가렛 핫산 뉴햄프셔 주지사와 윌리엄 레델 주방위군 사령관을 제외한 상원의원들도 친서를 보내 관심을 드러냈다. 뉴햄프셔 주 방송 및 신문 등 주요 언론도 이날 행사를 비중 있게 취재했다.

뉴햄프셔 국군묘지에서 22일 열린 보은행사에는 뉴햄프셔주 전역에서 모인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친지들을 포함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선우 전 한인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뉴햄프셔 한인회가 주최하고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후원한 이 기념행사는 보스톤 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 내외와 뉴햄프셔주의 마가렛 핫산(Margaret W. Hassan) 주지사와 주방위군 총사령관인 윌리엄 레델(William Reddel) 장군 등 양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지역사회의 한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엄성준 총영사와 마가렛 핫산 주지사는 행사 시작시간보다도 일

찍 도착하여 참전용사들 및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윌리엄 레델 총사령관도 그 날 펜실베이니아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햄프셔까지 와서 기념식에 참석한 뒤 다시 펜실베이니아주로 향하는 열의를 보였다.

엄성준 총영사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인회가 창립된 이래로 지난 십 수년 동안 미국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은행사를 주최해 온 뉴햄프셔 한인회의 박선우 전 회장(제 6, 9, 10대 회장) 및 집행부에도 감사를 표하였다. 마가렛 핫산 주지사도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과 한인회에 감사를 표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특히 대한민국정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Ambassador for Peace) 메달을 세 명의 참전용사들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축하했다.

이 행사에는 미연방의회의 뉴햄프셔 주대표인 진 쉐헨(Jeanne Shaheen) 연방 상원 의원과 켈리 애요트(Kelly Ayotte)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앤 커스터(Ann McLane Kuster) 연방 하원 등의 보좌관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대독하

고 편지를 전달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뉴잉글랜드지역 한인단체 대표들을 소개했다. 6.25 참전용사회의 강경신 회장 및 한인 참전용사,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조봉섭 회장과 코네티컷의 이무용 한미재단(Korean American Charity Foundation) 이사장, 김성혁 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보스톤 협회장 등이 소개됐다.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 전우회 리처드 모셰지안(Richard Moushegian)씨는 “해마다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행사를 주최해 온 뉴햄프셔 한인회와 한인동포사회에 감사하다” 고 전하였다.

조은경 회장이 이끄는 뉴햄프셔 한인회는 뉴햄프셔 주정부로부터 1월 23일 뉴햄프셔 한인회 신년 하례식날을 뉴햄프셔 한인회 날로 지정케 하는 등 주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류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해왔다. 조 회장은 “박선우 전 한인회장이 20여년간 쌓아온 정관계와의 끈끈한 인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인사이드소스에 따르면 마가렛 핫



행사시작 전에 기다리고 있는 참전용사들과 가족들, 주지사 및 상하원의원실의 수행원들, 그리고 각 방송사의 취재진



좌로부터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조은경 회장, 마가렛 핫산 뉴햄프셔 주지사, 박선우 직전회장



엄성준 총영사가 한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마가렛 핫산 뉴햄프셔 주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가렛 핫산 뉴햄프셔 주지사와 리처드 모셰지안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 전우회장

산(민주당) 주지사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뉴햄프셔 주 연방 상원의원 켈리 애요트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26일 현재 49대 41.4%로 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마약복용남용 문제가

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애요트 의원이 좀더 나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

도됐다.

hsb@bostonkorea.com  
[보도자료/사진=뉴햄프셔 한인회]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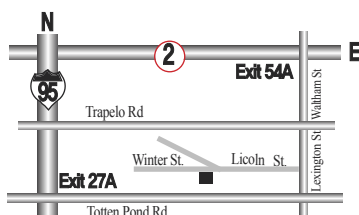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 한국무예진흥원과 업무협약

### 영어무예지도사 채용, 한국 태권도 사범 해외 진출 길 열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는 한국무예진흥원과 무예지도사 해외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 및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정제형 회장은 7월 23일 한국무예진흥원을 방문, 석기영 회장과 이정일 사무총장을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태권도협회와 한국 무예진흥원은 태권도를 비롯하여 타 무예종목의 지도자들의 미국 고용과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각각 마련하게 됐다. 한국무예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영어무예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은 지도자는 항료를 받아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산하 태권도장들은 지도자들에게 3개월 간의 견습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이후 최하 연봉 30,000불을 지불하는 정식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범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보도뉴스는 정제형 회장은 “미국에서 25년간 태권도장을 운영, 성공한 장본인으로 아직도 미국은 시장이 넓어 한국의 젊은 사범들이 도전할 가치가 충분한 곳” 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무예진흥원에서는 영어무예지도사 양



한국무예진흥원에 방문한 정제형 미국 매사추세츠주태권도협회장

성과를 만들어 무예지도사 해외 진출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은 우리 무예지도자를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태권도는 물론 기타 합기도, 검도, 특공무술, 경호무술 등 영어무예 사범을 선발 양성하여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

진흥원의 이정일 사무총장 겸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는 오랜 기간 미국과 영국 등 유

럽의 제도권 국가 무예 단체와 교류를 해오면서 태권도 사범 해외 진출을 도왔다. 이정일 사무총장은 “경기 불황으로 도장 운영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볼 때 영어무예지도사 양성과정은 우리 무예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 오병헌 전 고려대 교수 별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병헌 전 고려대 및 성균관 대학 교수가 7월 23일 토요일 별세했다. 향년 90세다. 오 전 교수의 웨이크 및 장례는 28일 렉싱턴 소재 더글라스 퓨너럴홈에서 열렸다.



오병헌 전 고려대 교수

오 전교수는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정치학을 연구했다. 고려대 및 성균관대 교수를 역임했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활약기도 했다. 오병헌 교수는 2011년 <한국의 좌파>를 저술하고 보스톤코리아와 인터뷰를 통해 집필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35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연구 및 집필활동을 계속해왔다. <모택동 사상, 1975> <평화 통일은 가능한가, 1996> <북한의 운명, 2003> <한국의 좌파, 2011> 등이 있다.

서울대 동창회는 “2011년 발표한 저서 <한국의 좌파>는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3년 간 하버드대 도서관과 인근 공립도서관을 다니시며 저술하시어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동창회의 이름으로 삼가 오병헌 동문님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오영수 권사와의 슬하에 아들 오명훈(마이클 오), 딸 오소명 씨 1남 1녀를 두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오깃차차**

여름철 기력회복엔 역시 홍삼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체외로 열기를 배출해 안다고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 몸속은 열기가 차고 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허약한 열기를 보충해주는 홍삼이 좋습니다.

어름엔 차게 드셔도 좋습니다!

NEW

여름철 여드름관리하기

홍삼 고미류 필름 / 홍삼 오버나이트 마스크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하루 내 다들 날 받아주세요.  
\$1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한인 2세 김산, 미 풋살 청소년 대표팀 선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김산(Marc Kim, 11) 군이 11세 이하 미국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 워터타운미들스쿨에 재학중인 마크 김은 지난 7월 7-9일까지 캔사스 가드너에서 열린 미 청소년 풋살 전국 선발전을 통해 11세 이하 청소년 팀으로 선발됐다.

풋살은 5명씩으로 조를 짜 경기를 하는 실내 축구 경기로 긴 겨울동안 실외축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미동북부 지역에서 발전했다. 동북부 지역에서 축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풋살은 아주 소중한 경기다. 실내 축구장을 갖춘 클럽팀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겨울동안 풋살 리그와 토너먼트 등으로 축구연습을 한다.

독일에서 자라 축구를 했으며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김산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배웠으며 7살 때부터 본격적인 축구수업을 시작했다. 아버지 김원태 씨는 김산에게 축구의 기본기술을 가르치고 축구 게임을 이해하는 전술도 가르쳤다.

김산은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김산보다 나아 보였던 학생들보다 조금씩 우위를 점했다. 워터타운 팀에서 뉴튼에 소재한 엘리트 축구 클럽에서 활동했다.



마크 김(한국명 김산, 11, 오른쪽)이 11세 이하 미국 청소년 풋살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

김산은 지난 2015년 10월 열린 미 동북부지역 풋살팀 선발 캠프에 코치의 권유에 의해 참가했으며 3일간의 연습 및 경기를 통해 실력을 평가 받았다. 11월 김산 군은 동북부 지역 팀에 선발됐으며 올해 7월 미 대표팀 선발캠프에서 대표팀으로 선발되는 행운을 안았다.

김산군은 올해 말 미국 대표팀 소속

으로 활약하게 된다. 김산군의 장래 목표는 미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아카데미팀에 선발되는 것이다.

그는 평상시에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비디오 게임도 좋아한다. 수학을 잘하며 바이올린 연주도 좋아한다.

hsb@bostonkorea.com

## 2016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찬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는 22일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이하여 보스톤한인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후원으로 참전용사 보은 행사를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에서 개최했다.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는 매사추세츠 주내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각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간단한 정전 기념식과 함께 준비한 식사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

영사를 비롯 각 한인단체장들이 참여했다. 평통 이현주 홍보간사는 "이번 행사는 각 한인단체의 마음을 모아 하나의 행사로 단결력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컸으며 더 많은 참전용사들과 각 단체장들 그리고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되어 보람이 컸다" 고 전했다.

한선우 민주평통 보스톤 회장은 "한마음으로 함께 행사를 후원해 주신 각 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는 22일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이하여 보스톤한인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후원으로 참전용사 보은 행사를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에서 개최했다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영화 '부산행' 무료티켓 이벤트 당첨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화 <부산행>의 보스톤 개봉에 맞춰 보스톤코리아가 실시한 부산행 무료 이벤트에 당선된 10명이 선정됐다.

7월 27일까지 보스톤코리아닷컴에서 7일간 실시된 무료 영화 티켓 이벤트에는 총 28명의 독자가 참여했으며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은 이 중 기발하거나 재미있는 10명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당선자들은 보스톤코리아(bostonkorean@hotmail.com)에 티켓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보내거나,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수령하면 된다. 이메일로 받은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매표소에서 2장의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티켓은 8월 1일부터 4일까지 평일 상영분의 영화만 무료 관람가능하다.

직접 수령은 8월 1일부터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보스톤코리아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부산행>은 22일 금요일부터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에서 개봉한다. 당첨자와 당첨작은 다음과 같다.

hsb@bostonkorea.com

## <부산행> 한국 영화 사상 최대 흥행 신드롬

개봉 첫 주 600만, 주말 일일 최다 관객 수 돌파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 기록 뛰어넘어  
북미서도 흥행 행진, 한국과 북미 동시 흥행 질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이 한국 개봉 첫 주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개봉 6일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일일 최다 관객수에 이어 개봉 첫 주 최다 관객을 동원, 한국에서 압도적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북미 27개 스크린에서 일제히 개봉한 <부산행 (Train To Busan)>은 주말 3일 동안 28,776달러를 벌어들이며 지난 해 북미 개봉 당시 개봉 외화 중 4위를 수성했던 <암살>과 올해 화제작이자 북미 흥행작이었던 <곡성>과 비슷한 오프닝 스퀘어를 보였다.

<부산행>은 한국에서 한국 영화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이 세운 개봉 첫 주 5일간 관객수 4,767,617명을 가뿐히 뛰어 넘었다. 더불어 <명량>이 2년 전 세운 역대 최고 오프닝, 역대 일

일 최대 관객수, 역대 개봉 첫 주 최고 스코어 및 역대 최단기간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6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모두 갈아 치우며 한국 영화 흥행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배급사 측은 “한국에서의 흥행 뉴스를 통해 높아지고 있는 인지도와 북미에서 <부산행> 관람 후 입소문 등으로 그리고 스크린당 높은 평균 매출액을 살펴볼 때 <부산행>의 북미 흥행 질주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영화 영어 자막문제로 한 주 개봉이 연기된 부산행은 7월 29일부터 금요일부터 AMC 로우스보스톤커먼 극장에서 상영한다. 금요일 및 주말 상영시간은 오전 10:20, 오후 1:10, 4:05, 7:05, 10:00 이다.

hsb@bostonkorea.com

하안나

부: 부디 이번만은.

산: 산소같은 소중한 남편과

행: 행복하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기를.

Mifasola

부: 부자되세요

산: 산울림 소리에

행: 행여나 맞을까 파워볼 티켓 샀어요

spryoung

부: 부지런한 아내~~

산: 산소같은 아내~~

행: 행패만 안부리면 좋으련만~~

스톤스톤보스톤

부: 부 자였으면

산: 산 티켓으로 보겠지만 아직은 학생이라

행: 행 사할때마다 보스톤 코리아를 기웃 거리네요  
.... 뽑아주세요 ㅠ

ii33

부: 부산행 기차를 타고 가는길 울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산: 산산조각이 난거 같은 그녀의 마음.

행: 행복했던 시절이 잊혀지지 않아서 일까..

Networksun

부: 모님, 형제, 친구들을 멀리 두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머나먼 타국에서

행: 행복을 찾는 방법은.....당첨 되는건데..

도와주실꺼죠?

jesslee

부: 부엌때기 식순이가

산: 산뜻하게 기분전환 하러 보스톤으로

행: 행차하고 싶어요 <부산행> 보러~~

한약조아

부: 부실한 남편....

산: 산삼 달여 먹이면

행: 행여나 힘좀 쓰려나 했더니.... 영~~~

Diane

부:부비부비하기엔 너무 더운 여름

산:산들한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좀 쐬면서

행:행복하게 극장에서 영화보면 좋겠당...

you123

부 : 부디 로또 당첨되게 꿈으로 번호 알려 주세요

산 :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행 : 행군 40Km하는 꿈이었다ㅠ

이번주 40번을 찍어야 하나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지애 뉴잉글랜드 협의회 총무 겸 우리 뿌리 한국학교 교장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재미 한국학교 덴버 학술대회 뉴잉글랜드 협의회도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총회장 최미영)가 주최한 제 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박지애 총무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명정호 교사가 25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하는 등 5명의 교사가 장기 근속상을 수여 받았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덴버 콜로라도(Denver, CO)에서 7월 11일부터 6일간에 걸쳐 열린 학술대회에는 총 420명이 모여 연수 일정을 소화했다. 14일 개최식에서는 신재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박근혜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지애 뉴잉글랜드 협의회 총무 겸 우리 뿌리 한국학교 교장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명정호 북부보스톤한국학교 교사는 25년 장기 근속, 조진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사는 20년 장기근속, 김영순 뉴잉글랜드한국학교교사, 송미경, 안순지 보스톤장로교회한국학교 교사가 15년 장기 근속, 그리고 이상윤

지한국학교 교사가 1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 (나의꿈말하기대회)에서 우승해 본선에 진출한 북부보스톤한국학교 김하리 학생은 미주 전체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20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에서 최연소 만점을 받았던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김태연 학생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 첫 참석한 김주연 북부보스톤한국학교 교장은 “학술대회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한국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교사들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여 준비된 좋은 강의를 듣고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한 한글학교 교사연수회가 7월 한국에서 열렸다. 뉴잉글랜드협회에서는 김현주 밀알한국학교 교장, 김여진 북부보스톤한국학교 교사가 참석해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bostonkorean@hotmail.com

## 뚝뚝뚝 새단장, BU는 공사중

극장, 전시장, 공학센터, 기숙사 신축 및 보수중 학생, 동문들 새 시설에 기대, 역사 파괴 의견 엇갈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 대학(이하 BU)의 찰스리버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곳곳에 공사중인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캠퍼스의 중심을 지나는 커먼웰스 에비뉴 (Commonwealth Ave.)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거나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가 이뤄지거나 계획중에 있다. 새로운 건설계획 발표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BU의 혁신에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BU는 최근 올해 가을에 커먼웰스 에비뉴에 새 극장의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뜰 것을 발표했다. 250석 규모의 스튜디오와 연극 관련 시설이 들어설 새 극장은 BU 찰스리버 캠퍼스의 중심인 커먼웰스 에비뉴의 820에서 846에 걸쳐 건설 될 예정이다. 린 앨런 예술학부 임시 학장은 “관계자와 스텝들이 현대적인 시설에서 더 좋은 무대를 제작함은 물론, 현대적인 무대를 찰스리버 캠퍼스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BU동문지 보스토티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기존에 허핑턴 에비뉴에 있는 850석 규모의 극장 (BU Theater)는 내년 봄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BU의 부운영국장 윌트 메이시너는 “새로 건설할 극장이 기존의 대규모 무대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에 이뤄졌던 대규모의 오페라나 공연은 대역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U의 예술



올해 가을 첫삽을 뜨게 될 새 BU 극장 신축공사에는 5천만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학부 학생 제퍼리 씨는 “노후화된 시설을 대체하는 것은 학업성과 증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말을 남겼다. 반면, 졸업생이라 주장하는 한 동문은 “BU가 역사와 유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BU는 다른 곳에서도 건물을 건설 중이거나 보수 중에 있다. 작년 9월까지 정원이었던 610 커먼웰스 에비뉴에는 9층 규모의 생명과학 및 공학센터가 건설 중이다. 2017년 봄에 완공 예정인 이 공사에는 \$1억5천만 예산이 투입되었다. 808 커먼웰스 에비뉴의 빌딩 1층에 있던 미술 전시장은 비주얼 아트 리소스 도서관 1층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창문이 없는 벽으로 막혀있는 도서관에 창문을 뚫어 밖에서도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쇼윈도 형식의 배치를 할 예정이다.

BU의 기숙사인 마일즈 스탠디시홀은 2014년부터 방학마다 재건축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920년대에 지어진 BU에서 가장 오래된 이 기숙

사는 미로같은 복잡한 구조와 낡은 시설 때문에 악명이 높았다. 누수, 냉방시설, 엘리베이터, 생활관 재배치를 위한 공사를 위해 \$1억3천만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사는 2018년 가을학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학생지원팀 주거담당책임자 마크 로빌라드 씨는 “(보수공사가 끝나면)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방을 통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에 대해 대부분의 BU 학생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공사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나타냈다. 호세 아이타스 씨는 “BU가 설명도 없이 아직도 헛된 공사를 할 예산이 남아 있나?”며 막대한 자금 사용을 비난했다. 에이미씨는 “공사가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주변 기숙사의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뉴잉글랜드 지역, 은하수 보는 세 가지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대기오염물질과 인공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광공해 현상(light pollution)이라 한다. 이탈리아 소재의 광공해과학기술연구소(Light Pollu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광공해현상으로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1은 은하수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인구가 광공해현상으로 밤하늘이 덮인 곳에서 거주 중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여전히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보러 갈 것인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기 위해 힘겨운 하이킹을 하거나 깊은 산중에서 밤을 꼬박 새는 등, 야외활동 고수들이 할 수 있을 법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더불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 은하수 보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는 Boston.com에서 발췌한 것이다.

### 1. Frosty Drew Observatory

주소: 61 Park Lane, Charlestown, R.I.; 401-364-9508

로드 아일랜드에 위치한 프로스티 드류 관측소는 금요일 밤에 전망대, 하늘 극장, 망원경을 대중에게 무료로 오픈한다. 별을 관측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이곳은 저녁 7:30 무렵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관람객이 자리를 뜰 때까지” 문을 열어둔다고 한다. 달빛이 고요한 맑은 날에는 새벽까지도 운영된다.



### 2. Acadia National Park

초보 캠핑자라면 좀 망설여질 수도 있겠지만, 별을 보기에는 아카디아 국립공원만 한 곳이 없다. 특히 매해 열리는 아카디아 밤하늘 페스티벌(Annual Acadia Night Sky Festival)에 참여한다면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성공적으로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에는 9월 22일에서 25일까지 열리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워크샵과 강의, 별보기 체험이 있을 예정이다. 축제를 기념하여 근처 바하버의 B&B나 호텔에서 특별 숙박가가 제공된다고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Curtis Cove, East Blue Hill, Maine

만약 여러 가지 조건만 잘 들어맞는다면, 이곳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봄부터 가을까지, 대서양 너머로 은하수가 보이는 이곳은 찾기 너무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차로 접근이 가능하다. 저녁 내내 해변 도로 옆에 주차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산중턱에서 은하수를 보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은하수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sun@bostonkorea.com



## 체스트넛 힐에 새롭게 설치된 공공예술

### 예술가 커티스 쿨릭의 스마일리 스티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체스트넛 힐 쇼핑센터와 길거리에 영구적인 공공예술이 지난 23일 설치되었다. 이는 예술가 커티스 쿨릭(Curtis Culig)의 작품으로, 현재 런던, 파리, 이스탄불, 도쿄의 거리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번에 설치된 작품의 상징적 모티프는 동그란 웃는 얼굴로, 눈 대신 “러브미(love me)”가 쓰여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더 스트리트(The Street)의 마케팅 코디네이터 애니 레가세(Annie Lagasse)는 보스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쿨릭의 작품을 첫 번째 영구 공공예술 설치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쿨릭의 작품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행복하고 컬러풀한 느낌이다. 그의 스마일리를 보고나면 웃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며 “이곳의 분위기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항상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3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노란색 스프레이로 그려진 스마일리로, 보행자 도로 이곳저곳에 그려져 있다. 두 번째는 “99% 행복”이라는 제목의 벽화로, 인터믹스(Intermix)와 델 프리스코 그릴(Del Frisco's Grille) 사이에 있는 벽에 설치되었다. 3층 높이의 벽에 그려진 99개의 하얀색 스마일리 속에 단 1개의 빨간색의 찡그린 얼굴이 눈에 띈다. 세 번째 작품은 지난 토요일 진행된 이벤트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한 색상의 러브미 스티커 설치물이 쇼핑센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

커티스 쿨릭은 자신의 작품 99% 행복에 대해 “내가 삶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99%의 행복 옆에는 1%의 찡그림이 있다”고 말했다.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매사추세츠 지하수 90%, 부식 오염 가능성

가정용 식수 오염 위험성 있어  
특히 민영 지하수 사용 시 검사해봐야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민영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지질학 연구소(US Geological Survey)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5개 주의 지하수가 부식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 주의 플린트(Flint)에서 지하수로 인한 아이들의 납중독이 발생한 것이 불과 일 년 전의 일이다. 당시 주민들은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신 병에 든 물을 사서 마셔야 했다. 플린트 강 상층부 물의 부식성이 강했던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다.

부식성이 강한 물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다. 오염여부가 발생하는 것은 그 물이 수도관의 표면에 부딪히며 수도관을 부식시킬 때이다. 지하수가 가정용 식수로 공급 될 때에 수도관에 있는 독성물질이 함께 흘러들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장 주의해야 하는 대상은 매사추세츠 주민 가운데 민영 수자원 수도물을 사용하는 534,000명이다. 매사추세츠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수도물과는 다르게 민영 수자원 지하수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를 주관한 지하수 연구 센터장 켄 벨리츠(Ken Belitz)는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영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테스트해 볼 것을 권유한다” 고 말하며 “부식성이 강한 수도물일수록 납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케이프 코트의 경우, 20%의 주민이 민영 수자원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다. 지방 관리들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을 마시기 전 최소 5분 이상 물을 흘려보낼 것을 권유한다. 특히, 몇 시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반스테이블 카운티(Barnstable County)의 보건 환경부서장인 조지 호이펠더(George Heufelder)는 “사람들이 샤워를 마친 이후에 수도꼭지의 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을 것을 권유한다” 고 말하며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민들에게 민영 수자원에서 매사추세츠 주 수자원공사로 바꿀



것을 권유하고 있다. 물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도물의 안전여부는 얼마나 잘 관리하고 검사하느냐에 달렸다.

매사추세츠 주의 환경관리부 대변인인 에드문드 콜레타 주니어(Edmund Coletta Jr.)는 “환경관리부는 공공 식수의 부식 오염 문제를 다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전 매사추세츠 주 주민들에게 보장 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보호자들은 주의 환경관리부가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일을 잘 감당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00년도 이후, 예산감축으로 인해 환경관리부의 35%의 인력이 감소되었고, 작년 한해만 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물의 중금속 오염여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싱크대 주변에 푸른색의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물에서 금속 맛이 난다거나 배관 기구에 금이 가있으면 의심 해봐야한다.

1930년대 이전에는 납 성분의 수도관이 가정용으로 많이 보급되었다. 1980년도에도 여전히 수도관을 잇는 납땀으로 인해 일정 수치 이상의 납이 수도관을 통해 검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납 쇠관이나 아연도금 관에도 납이 사용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지하수 90% 이상이 부식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현상은 동부지역일수록 심화된다고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하여 미국 북동부 지역의 지하수는 이 지역의 돌과 광물의 요소 때문에 다른 미국지역에 비해서 산성을 띄고 있으며, 바다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염화물이 이에 추가되어 부식성이 더 강화된다.

sun@bostonkorea.com

<리우 올림픽>

# 제 2의 우생순, 국가대표는 누구?

24개 종목 204명 출전, LA이후 역대 최소규모 불구 금10 도전  
여자 핸드볼, 펜싱 신아람, 육상 김국영, 여자 하키 각오 다져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한국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27일 브라질 리우 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와 종합순위 10위라는 목표를 세운 한국선수단은 지카 바이러스와 현지의 치안문제 등 선수단의 신변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1984년 LA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규모의 선수단인 204명을 파견했다.

한국팀은 전통적인 텃밭인 태권도, 양궁, 유도, 사격, 배드민턴과를 비롯하여 수영의 박태환, 체조의 손연재, 골프에서 메달을 기대한다. 그러나 역대 올림픽에서 열약한 환경과 편파적인 판정을 극복하고 깜짝 활약했던 선수들도 많았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제 2의 우생순과 국가대표를 찍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여자 핸드볼 - 24년만에 금메달 도전하는 '우생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 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 여자 핸드볼팀은 24년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아테네 올림픽의 주역 오영란과 우선희도 이번 대표팀에 합류했다. 특히 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은퇴했던 오영란은 리우 올림픽을 위해 복귀했다. 전체 한국선수단에서 가장 맏언니로 이번 올림픽에서 마지막 투혼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신아람 - 편파판정 딛고 금메달 재도전  
런던 올림픽 최악의 오심 피해자였던 여자펜싱 에페의 신아람은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올림픽에 재도전한다. 신아람은 당시 경기 종료 1초를 앞두고 승리가 유력했으나 주최 측이 경기종료를 선언하지 않는 오심 때문에 연장에서 5대 6으로 패배했다. 신아람은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심리적으



핸드볼의 오영란(44)을 앞세운 한국대표팀 본진이 27일 브라질 리우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로 잘 대처하겠다” 며 “목표는 금메달” 이라고 밝혔다.

김국영 -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김국영은 남자 육상 100m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그는 좀처럼 깨지지 않던 서말구의 한국기록(10초 34, 1979년)을 31년만에 갱신한 한국기록 보유자다. 비록 그의 기록 10초 16은 우사인 볼트(9초 58)를 비롯한 정상권과는 큰 차이가 있어 메달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리우에서 10초1대 벽을 깨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자 필드하키 - 1차 목표는 4강 진입  
88년과 96년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필드하키는 20년 만에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이 속한 조별예선 A조에 속한 6팀 중 한국(9위)보다 세계랭킹이 아래인 팀은 스페인(14위)밖에 없지만 한국 여자 하키 대표팀 한진수 감독은 “4강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며 “느낌이 좋다” 는 짧은 말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희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두통
- 두통, 편두통, 두뇌기능 개선, 스트레스 완화
-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관 질환 예방, 비뇨기 장애
-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 노인, 재활치료, 치료 효과 향상
- 기타 시술외에도 치료하기 힘든 다양한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hwan Kim DMD

##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주에서도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시행

내년 가을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2020년 10월까지 새 신분증 없으면 불편 겪을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26일 새로운 운전면허 법안에 서명했다. 연방 정부의 리얼아이디(Real ID) 법안에 따른 필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리얼아이디 법안은 911이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2005년에 연방 의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주의 반발로 시행이 수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현행 매사추세츠 운전면허는 연방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매사추세츠 주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안 서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방 기준에 미달되는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연방 정부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내가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능한 고통 없이 운전면허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란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리얼아이디 법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른 새로운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은 2017년 가을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새로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신분 증명을 해야 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신분 증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원치 않는 사람은 신분 증명 없이 운전만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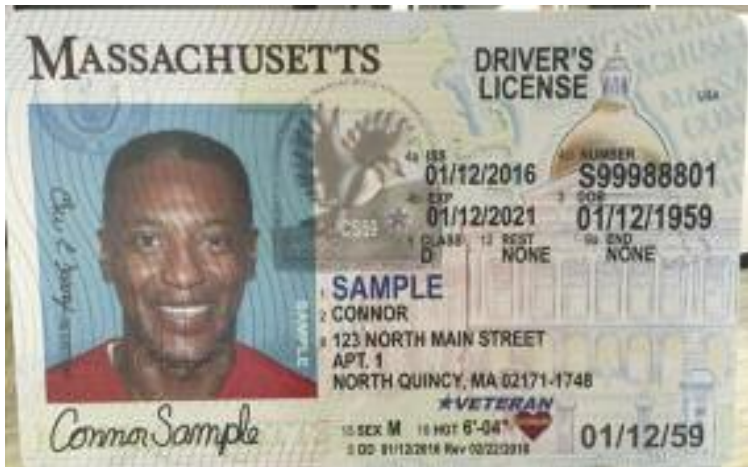
베이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운전면허증 디자인은 최종 디자인이 아니며 연방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당장 운전면허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운전면허증이 만료될 때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되어 발급받게 된다.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무료로 발급된다.

연방 정부의 리얼아이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미국 거주자는 2020년 10월까지 법에서 규정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의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교통부에서 공개한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



2015년 초에 내린 폭설로 레드라인과 오렌지라인이 수 차례 정상 운행되지 못했다

## 겨울 대비 MBTA 업그레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가 겨울 폭설을 대비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MBTA는 2015년 폭설 당시 운행이 정지되었던 레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3,030만 달러를 들여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겨울 대비 레드라인 보수 공사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몇 주 간은 주말에 레드라인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


MBTA는 레드라인의 지상 구간에 3번째 레일을 추가로 건설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폭설이 내릴 때 눈

이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열선을 설치하고 신호 체계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미 MBTA는 지난 해에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8,500만 달러를 들여 기존의 노후한 설비를 보수 및 강화했다.

브라이언 쇼츠리브 MBTA 사장 대행은 "전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한 오렌지라인과 레드라인이 겨울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고 말했다.

2015년 1월과 2월에 내린 폭설로 레드라인과 오렌지라인은 수 차례 전철 운행이 지연되고 심지어 기동이 중지된 적도 있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복쌈,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efSoupSoup.com



서울 or Deacon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oston.com

##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주매, 임대,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tevenson@newstarrealty.com](mailto:Stevenson@newstarrealty.com)  
[Sun2323@gmail.com](mailto:Su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http://Bostonnewstarrealty.com)

##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 오바마 "클린턴 나보다 대통령에 더 적합한 인물"

## "우리 가치 위협하는 자생적 선동가" 트럼프 직격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힐러리 클린턴보다 미국 대통령으로 복무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확신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그의 전 경선경쟁자이자 자신의 1기 임기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찬조 연사 자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간 행적을 담은 영상이 방영된 뒤 연단에 오른 그를 향해 웰스파고센터에 모인 5만명의 군중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외쳤고,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을 다시 보게 돼 기쁘다. 맞다, 우리는 해냈다"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밤 여러분들 앞에 또다시 섰다. 두차례의 임기가 끝난 뒤,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11월 선거는 단순히 당과 정책 사이의 선택, 좌와 우 간의 토론이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선택,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이 위대한 미국의 경험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50개 주를 모두 방문했다. 여러분과 기쁨을, 또 애도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 나는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았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더 많은 기회

를 만들어어나가는 이들을, 가득 찬 에너지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위대하며 도널드 트럼프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선거구호를 전면내 내세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복무할 자질을 갖춘 어떤 한 남성도, 어떤 한 여성도 없다고 자신에 차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조차도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부족하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악관 집무실의 요구에 진정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책상 앞에 앉기 전까지는 글로벌 위기를 관리하고 청년들을 전쟁에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힐러리는 그곳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었다"고 클린턴의 외교적 경험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최고사령관으로 적합하며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은 전 세계의 지도자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존중 받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과 함께 경선레이스를 완주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지지자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믿어라, 힐러리는 이를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작동

한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이 존재함을, 정치에 너무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버니를 느껴봐라"(Feel the burn)는 샌더스 지지자들의 구호를 선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클린턴이 그전까지는 인식되지 않았던 여성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도 호소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는 할 수 있다'(yes he will)가 아닌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제 여성 대통령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를 미국인으로, 애국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들,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지하디스트, 혹은 자생적 선동가(트럼프)가 마침내 패배하는 이유"라며 트럼프는 가을 선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여러분이 내게 했듯이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해주길 요청한다. 여러분이 나를 이끌었듯이 그를 이끌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클린턴에게 "바통을 넘길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약 한시간에 걸친 긴 연설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에는 클린턴이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해 오바마 대통령과 포옹을 나누고 어깨를 맞대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영된 NBC방송 인터뷰에서도 대선 본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월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내가 장 두려워하는 점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지를 깨우치는 데 별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yeoulim@news1.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필라델피아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랐다

## 美 전당대회 장사 누가 잘했나... TV 시청률 민주당 '승'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꽃인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 모았을까? 닐슨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전대 둘째날인 26일 오후 10시~11시 15분쯤 찬조 연사로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총 7개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당시, TV 앞에 모인 미국 시청자는 평균 약 2470만명이었다.

이는 공화 전대 이튿날이던 19일 오후 10시~11시 평균 약 1975만명의 시청자를 불러 모은 것보다 500만명이나 더 많은 수치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흥행에서 공화당을 제치며 이른바 '전대효과'를 더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집계 기준이 된 7개 채널은 ABC, CBS, NBC, CNN, MSNBC, 폭스뉴스, 폭스비즈니스뉴스 등이다. 제시된 수치들은 이들 채널의 평균 시청자를 모두 합산한 결과다.

앞서 전대 첫날에도 민주당은 공화당을 앞섰다.

민주 전대는 첫날 오후 10시~11시 30분쯤 평균 약 2600만명의 시청자를 끌어 들였다.

공화 전대는 첫날 오후 10시~11시쯤 평균 약 2302만명이 시청해 민주당에 298만명 정도 뒤졌다.

icef08@news1.kr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 트럼프, '최저임금 10달러' 공약 제시 공화 정강과 대치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약 1만 13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27일 플로리다 주 도탈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연기자회견에서 현행 시간당 7.25달러(약 8200원)인 최저임금을 "최소 10달러 수준으로 올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과거 취했던 입장이거나 공화당의 정책적 기조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공화당은 각 주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하며, 임금을 결정하는 주력은 노동 시장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주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공화당 정책강령에서도 사람들이 "정체된 임금으로 불필요하게 약해진 경제"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주와 지방 단위에서

다뤄야만 하는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각 주가 (최저임금 현안을) 지휘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연방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거듭했다.

트럼프는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그는 "세금이 너무 높고, 시급이 너무 높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가, 지난 5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유층 증세와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힘든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가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비판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버니 샌더스는 내가 최저임

금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시간당 10달러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행보에 가까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연두교서에서 10.10달러 최저임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백악관은 상원 민주당이 제시한 12달러 최저임금을 지지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전국적으로 12달러의 최저임금 도입을 지지했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 공화는 '우' 민주는 보다 '좌'클릭... "샌더스 80% 반영"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승리했지만 경선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5일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에 채택한 정강을 보면 민주당의 정책은 최저 임금, 환경 규제, 마리화나 합법화 등에서

보다 왼쪽으로 움직였다.

민주당의 정강위 소속 187명 위원은 지난 3주간 어떤 문구가 담겨야 하는지를 논의해왔다. 정당 지도부는 이번 정강에 대해 "공격적이다" 혹은 "대담한 비전"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샌더스의 정치 전문가가 워렌 거넬스는 NBC뉴스에 "민주당 정강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정치 혁명이 살아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며 샌더스 캠프가 원했던 정책 중 "최

소 80%"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날 샌더스는 전당대회 개막을 수시간 앞두고 열린 한 유세현장에서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강"을 갖게 됐다며 클린턴 지지자를 겨냥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달랬다. 콜롬비아대 교수인 로버트 사피로는 외신에 여러 정책들은 "샌더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취한 입장"을 반영했다고 진단했다.

allday33@news1.kr



미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미셸 오바마 여부인

## 전대 빛낸 미셸 오바마 "영부인 출신 두번째 대통령감"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경멸적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캠프를 박살냈다"

25일 미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개막한 민주 전당대회 첫날 미셸 오바마 여부인의 연설이 끝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그를 칭찬하는 말로 도배됐다.

소셜네트워크 분석 회사인 줌프에 따르면 오바마 여사를 언급한 트위터 메시지가 1초당 40개씩 쏟아졌다.

오바마 여사의 연설은 15분에 그쳤지만 대통령의 자질과 미국의 가치를 침착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조목조목 전달해 큰 인상을 남겼다.

그는 8년 전 백악관 입성하던 때부터 어린 두 딸을 키운 과정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미래가 지도자에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가 공화 대통령후보 트럼프 캠프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의식해 "이 나라가 위

대하지 않다고 주장하도록 내버려두지마라.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고 말하자 관중에선 일시에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 "우리의 모토는, 그들이 저급하게 행동할 때 고급지게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캠프와 차별화를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대 첫날의 승자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과 더불어 오바마 여사를 꼽으면서 그의 연설을 가리켜 "완벽한 휴먼. 앞으로 (전대에)남은 3일 동안 이보다 더 뛰어난 연설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칭송했다.

영국 가디언은 오바마 여사를 "트럼프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라고까지 표현했다.

AFP는 오바마 여사가 지금까지 6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인기를 누린 점을 언급하며 힐러리 클린턴 마냥 영부인 출신으로 차기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yjw@news1.kr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 617.868.2500

#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ydington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 손영권 치과

##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포켓몬 고' 효과... 차량 2만대와 맞먹는 휘발유 소비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증강 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에너지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몬 고'를 즐기는 한 명의 이용자가 매일 휘발유 0.2갤런을 사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컨설팅업체 다이버젠트의 이리나 슬라브 연구원은 27일 석유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 기고를 통해 "한명의 포켓몬 고 이용자가 소비하는 휘발유는 0.2갤런으로 많은 양은 아니나 전세계적으로 볼 때 2만대의 차량이 소비하는 양과 비등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들이 이동시에 소비하는 휘발유 외에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수천만명이 게임을 즐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감안하면 '포켓몬 고'가 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슬라브 연구원은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켓몬 고' 게임자들이 활발히 이동함에 따라 신발이 낡게 되고 이로 인해 신발 제조업체들도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슬라브 연구원은 증강현실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이 더욱 고무적이

라고 진단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향후 에너지 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yung@news1.kr



포켓몬의 캐릭터 '피카츄'

## 유가 3개월 최저치로 급락...美 원유재고 예상 밖 증가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뜻밖의 원유재고 증가 소식에 미국의 서부 텍사스원유(WTI) 가격이 3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브렌트유도 3% 이상 하락했다.

27일 WTI는 2.3% 하락한 배럴당 41.92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41.68달러까지 밀리며 지난 4월20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브렌트유는 3.1% 밀리며 43.47달러에 체결됐다. 장중에는 43.33달러까지 내려 5월10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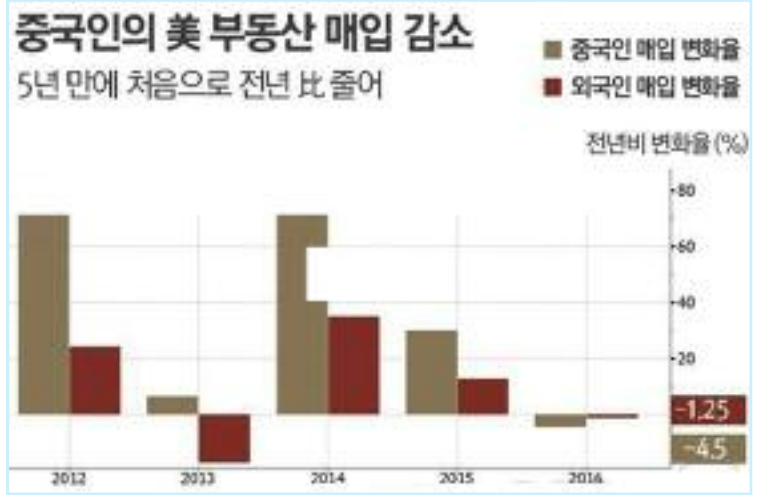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17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230만배럴 감소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정유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재고도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직후 잠시 급등했다가 약세를 나타내 유가의 낙폭을 제한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37% 하락한

%.82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미국 최대의 독립 석유업체인 발레로 에너지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 과잉이 마진 감소를 유발해 정유공장 가동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유수요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정제 마진은 2분기에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수개월 간 마진은 계속 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acenes@news1.kr



출처: 전미부동산협회 (NAR)

## '큰손' 중국인들, 美 부동산 시장 이탈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미국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해 온 외국인은 단연 중국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중국 자본이 미국 부동산 시장을 이탈하는 조짐이다. 블룸버그는 그 까닭을 중국의 강력한 자본유출 통제에 꼽았다.

전미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일년 동안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구입액은 273억 달러(약 31조원)로 일년 전의 286억 달러(약 32조원)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비 감소한 것이다.

매입건수도 3만4327건에서 2만 9195건으로 줄었다.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수요 감소는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외국인 전체의 매입 건수는 지난해 대비 1.25% 줄면서 3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인의 매입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위축 정도가 더 심했다.

전미부동산협회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내)

자본유출 규제가 중국 바이어들의 부동산 매입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중국 위안화가 급락하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때부터 금융 당국은 위안화 급락세와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 위해 해외 유출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외환거래 및 해외의 위안화 유동성을 억제하는 등 중국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외환보유고 유출 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그 결과 미국 부동산 시장의 중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돈을 중국 외부로 빼내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데이비드 왕은 "많은 중국인들이 모두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남길 수도 없고 이곳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 박대통령, 휴가 중 울산 감쪽 방문...돼지국밥 오찬도

### 태화강 십리대숲, 대왕암공원, 신정시장 찾아 구조조정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관광 도모 차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여름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울산을 찾아 대표적인 관광지를 둘러보고 시민들과 만났다.

박 대통령은 휴가 나흘째인 이날 수행원들과 전국 12대 생태 관광지 중 하나인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신라 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려고 바위섬 아래 묻혔다는 전설을 품은 대왕암공원을 둘러봤다. 재래시장인 신정상가시장에선 돼지국밥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해설사와 십리대숲을 둘러보는 모습, 대왕암공원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신정시장에서 상인들과 웃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흰색 남방에 검은색 긴 치마를 입고, 평소 하지 않던 크로스백을 옆으로 멘 편한 차림이었다.

십리대숲에서 시민들과 마주친 박 대통령은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즐겁게 지내다 가세요"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신정시장 방문 중 떡과자, 과일 등을 한아름 산 뒤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서 돼지국밥 오찬을 했다. 오찬에선 김기현 울산시장, 새누리당 박맹우·정갑윤·강길부·이재익 의원 등이 함께하며 지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신정시장에서 많은 상인들로부터 환호와 박수, 격려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모두들 대통령을 알아보고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셀카'(자신을 찍는 사진)를 찍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고 알렸다.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휴가에 돌입한 박 대통령은 그간 청와대 관저에 머물러 외부 일정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관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울산 방문에 나서게 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울산 방문 배경에 관해 "많은 국민들이 국내 휴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찾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

화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휴가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울산 십리대숲과 거제 해금강을 추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남 거제의 저도를 다녀왔다. 저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


돼 박 대통령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청해대(靑海臺)'가 있다.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세월호 참사 여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수습 등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휴가를 보냈다.

girin@news1.kr



여름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울산시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을 둘러보고 있다




## Hammond Residential


###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Umi Cho (우 초희)



508-641-8924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L. 29 - AUG. 4, 2016

## DO YOU BINGSU (KOREAN SHAVED ICE)?

Here's 4 ways Bingsu to try it! Have a spoon of sweets that keep you cool.  
H마트에서 소개하는 4색빙수 레시피로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b>\$5.99</b> ea.</p>	<p><b>FRID/SAT/SUN ONLY</b> 29/30/31 ONLY Korean Melon 한국 참외 <b>\$15.99</b> box</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원형원 우시사과 프리미엄 <b>\$1.49</b> lb.</p>	<p>Lotus Root 연근 <b>\$1.79</b> lb.</p>	<p><b>FRID/SAT/SUN ONLY</b> 29/30/31 ONLY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b>\$22.99</b> box</p>
<p>White Peach 백도 <b>\$1.79</b> lb.</p>	<p>Ginger 생강 <b>\$0.99</b> lb.</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b>\$0.99</b> lb.</p>	<p>White Nectarine 화이트 네틀린 <b>\$1.79</b> lb.</p>	<p>수녀원 콩두부 SOONYEWON Tofu All Varieties/14 - 16oz <b>\$0.99</b></p>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U.S.D.A. CHOICE</b>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미국산 스테이크) <b>\$6.99</b> lb.</p>	<p><b>FRESH</b>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양념 돼지 볼고기 <b>\$4.99</b> lb.</p>
<p><b>FRESH</b> Pork Spare Ribs for BBQ 비빔구운 돼지갈비 <b>\$3.49</b> lb.</p>	<p><b>FRESH</b> Boneless Chicken Breast 백없는 닭가슴살 <b>\$2.49</b> lb.</p>
<p><b>FRESH</b>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백없는 돈까스용 돼지고기 <b>\$4.99</b> lb.</p>	<p><b>FRESH</b> Marinated Beef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b>\$6.99</b> lb.</p>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9.99</b></p>	<p>대한외국산 DAECHEUM Seasoned Roasted Seaweed Layer All Varieties - 8.7oz x 10oz/box <b>\$9.99</b></p>
<p>KORU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이름 죽이 닭계탕 28.21oz. <b>\$9.99</b></p>	<p>NONGHYUP Asian Apricot Tea 농후 약초차 향미차 700ml. <b>\$21.99</b></p>

### 종가집 무료 증정 이벤트

PURCHASE SELECT CHONGGA ITEMS AND RECEIVE A FREE GIFT!

종가집 포기김치 2.5KG 구매시, 종가집 열무김치 500G 무료증정!

**JULY 30 - JULY 31, 20% AT ALL HMART MA STORES**  
PURCHASE CHONGGAS POGGI KIMCHI (2.5KG) & TAKE HOME A FREE YOUNG RADISH KIMCHI (500G)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FRID/SAT/SUN ONLY</b> 29/30/31 ONLY Ikura Wild Salmon Roe 자연산 연어알 <b>\$24.99</b> lb.</p>	<p><b>FRID/SAT/SUN ONLY</b> 26/30/31 ONLY Louisiana Wild Caught White Shrimp 양자양자 새우 9-12oz <b>\$7.99</b> lb.</p>
<p><b>FRID/SAT/SUN ONLY</b> 29/30/31 ONLY Abalone 냉동 전복 <b>\$19.99</b> lb.</p>	<p><b>FRESH</b>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6oz./pkg. <b>\$4.99</b></p>
<p><b>FRESH</b>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반 꽃게 1 lb./2lb. - pkg. <b>\$25.99</b> pkg./lb.</p>	<p><b>FRESH</b> WEST BAY Carving Squid 웨스트 베이 송풍용 오징어 1 lb./pkg. <b>\$3.99</b></p>

<p>NONGSHIN 21st Wang Noodle with Roasted Black Bean Sauce 4.7oz. x 4oz./pkg. <b>\$4.99</b></p>	<p>PULMUONE Spicy Oyster/Crab Noodle 물무원 향미 굴/꽃게 면발 3.4oz. x 4oz./pkg. <b>\$3.99</b></p>	<p>HAECHANDLE Photo Set 해찬들 사진 세트 3.4oz. x 4oz./pkg. <b>\$14.99</b></p>	<p>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동원 경유 표준 캔통조림 3.4oz. x 4oz./pkg. <b>\$7.99</b></p>	<p>SAR Golden Curry 새우 골드 커리 All Varieties 3.4oz. <b>\$2.99</b></p>
<p>HOUSE Wasabi 하우스 와사비 2.8oz. <b>2\$5</b> ea./oz.</p>	<p>HAKOREUM Canned Sea Top Shell 해오름 상패게 14.1oz. <b>\$4.99</b></p>	<p>PULMUONE Cold Noodle 물무원 냉면 3.4oz. x 4oz./pkg. <b>\$3.99</b></p>	<p>DONGSUN Maxin Coffee Mix 동원 맥신 커피 믹스 Original/Black/Soft Milk 1.13oz/box <b>\$12.99</b></p>	<p>HAKUREM Rice Pop Snack 해오름 주먹밥 쌀떡 Sweet Potato/Pumpkin/Green Tea <b>\$3.99</b> 1.7oz.</p>
<p>HAKOREUM Banana Flavored Milk Drink 해오름 바나나맛 우유 200ml. x 6oz./pkg. <b>\$4.99</b></p>	<p>신불레그랜드 스프레딩 소스 SAVRELLEGRAND Spreading Sauce All Flavors - 2.3oz. x 6oz./pkg. <b>\$3.99</b></p>	<p>KOMAX Instant The Bottle 코맥스 인스턴트 컵라면 All Flavors/3oz/box <b>\$2.49</b></p>	<p>KOTO Porridge Maker 코토 죽 제조기 Reecha <b>\$49.99</b></p>	<p>ZOJIRUSHI Rice Cooker &amp; Warmer 조지루시 미백용 전기밥솥 5.5-cup/1.8L ARCHICAN 10-cup/3.0L <b>\$179.99</b></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typos/error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실사/오류/인쇄/타이포/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매장은 한정된 수량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H마트 매장은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실사/오류/인쇄/타이포/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H마트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실사/오류/인쇄/타이포/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 원안대로 시행

"언론·교육인,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필요"

'식사·선물·경조사비, 배우자 신고' 조항도 합헌

(서울=뉴스1) 구교운, 최은지 기자 =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서 △교육인, 언론인 포함 여부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배우자 신고 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헌재는 쟁점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제2조 제1호 등에 대해서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우려해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私益)이 청탁금지법이 추구하는 공익(公益)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8조 제3항 제2호 등

에 대해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합헌으로 결론났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나뉘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외부강의 사례금이나 선물 등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제9조 제1항 등에 대해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정의조항

에 대해서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의 키는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됐다.

kukoo@news1.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 고비 넘긴 김영란법...결국 애초 취지 이룬 권익위 "다행"

'3·5·10만원' 가액 규정...법 시행 여론 조성

논란 중심됐던 권익위...헌재 결정으로 한시름 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핵심 쟁점 4가지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 시행을 위한 최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주도한 국민권의 위원회도 사실상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권익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발의 순간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도 일부 조항을 놓고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의 원래 취지대로 법안이 시행되게 됐다.

아울러 법 시행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 결정까지 넘어서면서 김영란법의 당위성까지 인정받게 됐다.

이 법을 주도했던 권익위도 헌재 결정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오자 큰 시름이 풀리는 분위기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탓이다.

실제로 이 법이 추진될 당시 권익위는 여러 이해단체들의 적지 않은 규탄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중소기업단체와 농림축수산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권익위를 내내 압박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권익위의 시행령은 이 법이 시행될 수 있기 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권익위가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라

는 기본틀을 마련했고 이 결정은 사실상 여론을 주도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하면 음식물 접대 허용 한도는 3만원을 그대로 적용했고,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한 점도 나름 성공적이었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한도는 그동안 농축산 식품업계나 요식업계 등 경제계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지만 강력한 반(反) 부패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을 꺾지는 못했다.

여러모로 헌재 결정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던 권익위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권익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 조항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 결정으로 다 끝난 일이 됐다"며 "우리가 만든 방안대로 법이 시행되게 된 만큼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여야 농어촌 의원, 한목소리로 농·수·축산업계 타격 우려

서울=뉴스1) 최종무, 서미선, 김정률 기자 =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 여야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수·축산업계에 미칠 타격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명절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금액적으로 기준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사대접 한도액인 3만원은 괜찮다 하더라도 선물제공 한도액을 5만원으로 하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농·수·축산"이라며 농·수·축산은 5만원 미만이면 전부 수입이다. 금액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이번 헌재 판결을 보면서 선물 가액을 정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은 빼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농수축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하루 빨리 대책이 수립돼서 농어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며 "지역에서는 품목에 따라 판매량이 거의 70~80%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적 합의를 이를 때까지 제도 도입의 준비를 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됐다"며 "3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김영란법의 원칙적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농어촌과 관계된 농산품이나 수산물, 화훼농가까지 그렇지 않아도 최저생활비도 충당 안 되는 하위 농어촌 인구에게는 엄청나게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kjmf@news1.kr

보스톤 **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http://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 고품질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ASC : Boston's #1 ESL School (F1 Students 환영)

CSI 학생이  
트랜스퍼할 경우 10% 할인  
WhatsApp us Now  
617-407-2536



1

- ESL Class (6 Levels)
- TOEFL
- Public Speech
- Idioms
- IELTS
- Business English
- Daily Conversation

3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Pathways Program** ASC Pathways Program에서 level 5 이상을 이수하시면 BS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4

파트타임 및 풀타임(I-20 student) 학생을 위한 야간 수업 시작 (월 \$750)

2

ASC가 특별한 이유! 아래의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Regis College	Endicott College
New York Film Academy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http://www.ascenglish.com)

# 새누리 이정현 · 더민주 송영길 1위...與野 전대주자 여론조사

## 매일경제 · 한길리서치 공동 조사결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다음달 9일, 27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당 당권주자들 중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주자는 새누리당에선 이정현,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의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민주에선 송영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0.5%p 차이로, 김상곤 전 당 혁신위원장까지 총 3명의 후보 중 '2강(強)구도'를 형성했다.

26일 매일경제 ·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선 친박(親朴근혜)계 이정현 의원이 12.5%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7.1%, 한선

교 의원이 6.7%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 정병국 의원(4.2%)과 주호영 의원(4.1%), 김용태 의원(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범친박계와 친박계, 정 · 주 · 김 의원은 비박(非박근혜)계에 속한다.

선두주자에 선 이정현 의원은 성별로는 남성층, 연령별로는 50 · 60대 이상, 광역별로는 충청권과 TK(대구 · 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주영 의원은 PK(부산 · 경남)와 강원권에서 선전했다.

더민주에선 현재 김상곤 전 위원장과 송영길 · 추미애 의원까지 3파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송 의원과 추 의원이 접전을 벌여 송 의원은 15.5%, 추 의원은 15.0%를 기록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4%로 뒤를 이었다.

다만 '없음', '잘 모른다', '무응답' 비율이 57.1%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 사람은 모두 친노(親노무현) · 친문(親문재인)계에 속한다.

송 의원은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19.1%를 기록하면서 추 의원(15.8%)과 김 전 위원장(10.6%)보다 앞섰다. 서울에선 송 의원이 17.3%, 추 의원이 16.4%를 기록했고, 김 전 위원장이 11.2%로 뒤를 쫓았다. PK에선 추 의원이 12.9%로, 송 의원(11.5%)과 김 전 위원장(8.3%)보다 앞섰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2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임의결기(RDD)에 의한 유 · 무선(각각 50%)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도 95%, 오차범위는 ±3.1%p다.

cho11757@news1.kr



새누리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병국(왼쪽부터), 김용태, 주호영, 이정현,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송영길 의원(왼쪽부터), 추미애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 비박 단일화로 '출렁'與 경선, 어디로...친박단일화?

(서울=뉴스1) 박선미, 김정률 기자 = 새누리당 8 · 9 전당대회에 후보등록 마감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출렁'이고 있다. 비박(非박근혜)계 정병국(5선) · 김용태(3선) 의원이 28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주호영(4선) 의원은 이번 단일화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참여 가능성을 담아놓지도 않았다. 비박계 발(發) 단일화는 친박(親박근혜)계의 쟁점 계산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정병국 · 김용태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도당위원장 이 · 취임식에 참석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특정 패권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 김 의원은 28일 여론조사(새누리당 지지층 70%, 일반국민 30%)를 실시, 29일 중 단일화를 이루기로 했다.

애초 이들은 주호영 의원까지 포함해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주 의원은 현 시점에서의 합류를 거부해 '반쪽 단일화'에 그쳤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번에는 단일화 명분, 시기 등에서 견해가 달라 참여하지 않았지만 특정 계파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등 계파 대결구도로 가면 차선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추후 비박계 단일화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비박계가 이렇듯 단일화에 적극 나서면서 정권권의 관심은 친박계로도 쏠리고 있다.

비박계가 '반(反)친박 전선'을 구축하며 단일화에 나서 1명의 대표주자를 내세울 경우, 3(친박)대 1(비박)의 구도가 형성돼 상대적으로 비박계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박계 단일화로 전대 판세가 요동칠 상황을 대비해 친박 내에서도 후보단일화 '불가피론'이 모락모락 피어나지만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친박 당권주자 3

명은 '원주'의사를 강력히 괴뢰하면서 비박 단일화를 비판하는 모양새다.

이주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박 단일화는 계파 패권의 연장으로 당원과 국민에 대한 분명한 배신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벼랑 끝에 있는 새누리당을 구하는 게 지금의 제1관심사"라며 "일절 비난도 공격도 하지않고 내길을 가겠다"고 했다.

한선교 의원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으로 별 의견 없이 받아들인다"며 "저쪽(비박)이 했으니 이쪽(친박)이 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계파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원주에 무게를 뒀다.

이처럼 친박계 후보들이 단일화에 일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대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또한 당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주류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당권주자들이 출마 초기 너도나도 '계파청산'을 외쳤으나 결국 전대가 다가올수록 친박-비박간 계파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거물급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후보단일화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며 "결국 친박 대 비박 대결구도로 흐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gsm@news1.kr



새누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병국 · 김용태 의원

## 더민주, 오늘 전대 등록 마감...관전 포인트는?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8 · 27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 후보 등록이 28일 마감된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당대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전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예비경선 결과와 '문심(文心, 문재인)의 마음'의 선택, 부동산 움직임 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당대표 후보로는 원내에서 송영길 · 추미애 · 이종걸 의원과 원외 인사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3명의 후보로 압축하기 위한 예비경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대표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3명의 후보만 본경선에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 지도부를 포함해 상임고문 및 고문,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 구성에서 드러나듯 지역과 당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들의 첫 투표인 만큼 레이스 초반 후보들의 판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순위 등을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암암리에 다 알수 있지 않겠느냐"며 "당대표 레이스는 딱 한 달인데 후보 초반에 탄력을 받고 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경선"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레이스 기간 동안 '부동층'의 움직임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중립적 성향을 띠는 초선의원(121명중 57명)과 중립 당원들의 표심은 당대표 경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당내에서 치른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 의원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한 초선의원은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 안됐

고 그동안 상임위 및 의정 활동에 주력해 계파나 세력에 들거나 만들 시간이 없었다"며 "이번 선거도 '누가 당에 더 적합한지', 정책은 어떤지 등이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표되는 예비경선 결과도 부동산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캠프관계자는 "레이스 초반 캠프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하는 때에 중립지대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세력인 소위 '친노 · 친문(親노무현 · 親문재인)계의 후보 선택도 관심사다. 후보별로 보면 송 · 추 의원과 김 전 교육감은 주류세력으로 분류되거나 주류층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표가 많은 쪽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지만 '도로 문재인당'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들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전당대회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일부 주류계 인사들도 "후보 각자의 쟁점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라고 항변한다.

일각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나오면서 주류 세력의 표가 3곳으로 쪼개져 이 의원이 예비경선부터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playingio@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 우병우 특별감찰...강제수사권 없고 범위 좁아 실효성 논란

협조 요구 거부시 형사처벌 등 제재도 불가능  
"감찰 때문에 檢 수사 적기 놓칠라"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1) 김수환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도 시행 2년여만의 첫 감찰 대상 사건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의혹'을 지목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에게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감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의혹 규명 책임은 결국 검찰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주말 무렵 우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26일 출근길에 뉴스1 기자와 만나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감찰 개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현재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수석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의 의지와는 달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에게는 감찰대상자를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감찰대상자와 감찰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사실조회·협조 요구 권한 등이 전부다.

△감찰대상자와 감찰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사실조회·협조 요구 권한 등이 전부다.

특별감찰관에게는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처분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이다. 강제처분 방법으로 감찰을 하면 오히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 감찰대상자 등이 특별감찰관의 요구를 거부해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즉 우수석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 우수석과 관계자들의 '협조 의사'에 감찰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이밖에 비위 행위의 단서를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수석 비위 행위의 단서를 찾아낼 경우 결국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책임은 다시 검찰이 지게 된다.

다만 특별감찰관이 우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만큼 흐지부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경우 청와대와 이 특별감찰

관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감찰 범위 역시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에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다면 감찰할 수가 있다"며 우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벌인 비위 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특별감찰관법 제6조도 "감찰 대상인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석 관련 의혹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거래는 우수석이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1년 무렵 이뤄진 일이다. 또 몰래변론 의혹 등 상당수 의혹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런 핵심 의혹들은 모두 제외하고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49)의 검사장 승진 당시 우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만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거래 의혹 등 우수석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못

을 막은 이상 핵심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감찰 사안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다르지 같은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면서도 "(감찰 수사 사안은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 등도)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본다.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찰 개시로 인해 오히려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문제다. 의혹 규명의 실질적 책임은 여전히 검찰이 지고 있지만 특별감찰 때문에 수사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감찰 개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현재 검찰은 수사 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우수석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

찰로서는 감찰의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감찰은) 사실상 시간별 이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우수석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면서 후임 인선을 위한 시간을 주려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찰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수석이 사표를 낸다 해도 면직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대상자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감찰을 종료한다거나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감사부서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bilityk1@news1.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제윤경, 대부업 TV광고 · 연대보증 금지 패키지법안 발의

"금융소비자보호가 의정활동의 중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부업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을 패키지 형태로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부업 TV광고는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서만 방송이 제한되고 있으나 제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광고 방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금년 상반기 광고횟수는 전년 대비 36%정도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1일 평균 광고횟수는 757건 꼴로 TV를 켜면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 의원은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광고를 남발했고 그 결과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전체 대출건수의 50.7%로 절반을 넘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TV광고방송도 전면 금지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또 제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제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전화 보증 의사 확인만으로 보증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제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 악의적 채권추심"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취지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pishee@news1.kr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11조 추경안' 국회 제출... '누리과정 예산에 발목잡힐까'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6일 오전 11시쯤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11조원 추경의 바통이 국회로 넘어간다.

추경 세부내역 중 만 3~5세 무상보육을 골자로 한 누리과정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여야 합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만 3~5세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직접 편성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이 교부금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

장차로 현재 추경 심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안 등이 포함된 이번 추경이 빨리 집행돼야만 시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일정이 지연되면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parksj@news1.kr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추경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박기/치킨 테리야끼/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등심/돼지 불고기/곱창구이/돈까스,치킨까스  
야채/파전/순두부찌게/된장찌게/계란찜/공기밥/만두 튀김

##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등심구이/흑돼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허밀구이  
오삼불고기

##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박이/대패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끼/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게  
된장찌게/계란찜/공기밥/파전



### 영업 시간

일~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특심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781.391.5606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전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이제봉**  
781.654.5281



**Shell Yu**  
781.526.2416

## OFFICE LOCATIONS



**Sara You**  
617.899.3566



**OT Kim**  
617.620.8242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Hudson  
Littleton  
Methuen  
Norwood  
Plymouth  
Wareham  
Westborough  
Whitinsville  
Yarmouth Port

**Maine**  
Farmington  
Portland  
Saco  
Sanford

**Rhode Island**  
Norwalk

**LEXINGTON/BOSTON OFFICE**



**애나 정**  
617.780.1675



**Gina Choi**  
978.866.3248



**Sue Rong Tsai**  
617.792.8842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 패츠의 최우선 과제: 거라폴로를 준비 시켜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 시즌을 대비하는 패트리어츠 여름 트레이닝 캠프의 확실한 우선 순위가 정해졌다. 시즌 개막전부터 선발 쿼터백으로 출전해야 하는 지미 거라폴로를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NFL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아서 경기장에 나설 수 없는 탐 브래디를 대신해서 거라폴로가 4주 동안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브래디는 징계 처분이 끝난 뒤인 5주차 브라운스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빌 벨리치 감독은 트레이닝 캠프 시작 전날 진행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벨리치 감독은 “결국 우리는 브래디의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거라폴로를 (1주차 상대인) 카디널스와의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주 복잡하고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벨리치 감독은 “브래디는 복귀를 할 때 선발 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풋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쿼

터백 상황에 대하여 감독이 설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벨리치 감독이 브래디와 거라폴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언론에 불친절하고 말이 짧기로 유명한 벨리치 감독은 보통 특정 선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특히 어떤 포지션이던 상관 없이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미리 말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디플릿게이트라는 특정한 상황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의식해서인지 벨리치 감독이 선발 쿼터백에 대한 구상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브래디의 백업이었던 거라폴로가 4주 동안 선발 출전하고, 5주차부터는 다시 브래디가 복귀하는 것이다.

올해 드래프트에서 선택된 패트리어츠의 3번째 쿼터백 자코비 브리셋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거라폴로가 눈부신 활약을 펼치더라도 브래디가 패트리어츠의 선발 쿼터백으로 복귀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

벨리치 감독은 NFL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한 브래디의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거라폴로를 어떻게 시즌



지미 거라폴로는 올해 처음으로 패트리어츠의 선발 쿼터백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까지 준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거라폴로는 매일매일 배우는 단계다” 라고만 설명했다. 징계를 받는 4주 동안 브래디를 어떻

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벨리치 감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브래디는 시즌이 시작하고 4주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패트리어츠 팀 동료, 코칭 스태프와도 일절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

계속해서 브래디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벨리치 감독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신들(기자)에게나 좋은 일일 것이다” 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 강정호, 4타점 맹타 승리 견인...오승환 6호 세이브 수확

김현수는 복귀 후 2경기 연속 안타, 이대호 '대타'·최지만 '대주자' 출장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4타점의 맹타를 휘둘러 팀 승리를 이끌었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연이틀 1점차를 지켜내고 세이브를 챙겼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부상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안타를 쳤고, 강정호와의 맞대결이 불발된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대타로 출전했지만 범타에 그쳤다. 최지만(25·LA 에인절스)은 대주자로 경기에 나섰다.

강정호는 2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벌어진 2016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5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5타석 4타수 1안타 4타점 1볼넷을 기록하며 팀의 10-1 승리를 이끌었다.

전날 경기에 이어 이틀 연속 2루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시즌 타율 0.241을 유지했다. 4타점을 추가해 시즌 타점은 35개가 됐다. 강정호가 한 경기 4타점을 올린 것은 지난해 9월 10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개인통산 2번째이다.

2회말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한 강정호는 3회말 1사 만루에서 맞이한 두 번째 타석에서 8구 접전 끝에 볼넷을 골라내 밀어내기로 타점을 올렸다. 이 타점으로 스코어는 3-0이 됐

다. 5회말 3루 땅볼로 물러난 강정호는 7회말 4번째 타석에서 승부에 췌기를 박는 적시타를 쳤다. 스티빙 마르테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4-0이 된 상황, 1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바뀐 투수 네이트 칸스의 초구 커브볼을 받아쳐 좌익선상으로 빠져나가는 안타로 연결했다.

세 명의 주자가 차례로 홈을 밟았고 강정호는 2루를 돌아 3루까지 노리다 아웃됐다. 그러나 스코어가 7-1까지 벌어지면서 승부는 피츠버그쪽으로 기울었다.

강정호는 앤드류 맥커친의 3점홈런이 터진 8회말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지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시애틀 이대호는 이날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대호는 8회초 대타로 출전했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돌아섰다. 시즌 타율은 0.266로 소폭 하락했다.

강정호의 4타점 활약에 콜의 생애 첫 완투 승까지 어우러진 피츠버그는 10-1 대승을 거두고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피츠버그는 52승 48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패한 시애틀은 52승 49패(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3위)가 됐다.

오승환은 이틀 연속 1점차를 지켜냈다. 오승환은 뉴욕 메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이 5-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

4로 경기를 뒤집은 9회말 등판해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지켰다.

전날 더블헤더 1차전에서 팀의 3-2 승리를 지켜냈던 오승환은 연이틀 살얼음 승부의 마지막 책임졌다. 오승환은 시즌 6세이브째를 올렸고 평균자책점도 1.72로 낮췄다.

3-4로 끌려가던 세인트루이스는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야디어 몰리나, 폴튼 윙의 적시타로 극적인 역전을 일궜다.

앞서는 상황이 되자 세인트루이스는 주저 없이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렸다.

오승환은 첫 타자로 알레한드로 데아자에

게 잘 맞은 타구를 허용했지만 좌익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

이어진 타석의 후안 라가레스는 1볼2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95마일(약 153km)짜리 강속구로 헛스윙을 유도해 삼진을 잡아냈다.

오승환은 마지막 타자 아스트루발 카브레라마저 4구만에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세인트루이스는 54승 47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starburyny@news1.kr](mailto:starburyny@news1.kr)

# POSPay



##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Church of Boston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임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Mass Sunday 10 am (English)  
 2016년 6월 12일 - 2016년 8월 28일까지  
 2016년 9월 18일 - 본당의 날

New Mass Sunday 8:30 am (Korean)  
 6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가정의 비니막 (행 2:17)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음악 / 찬양 / 찬송 / 영요봉부예배 / 생전부요행  
 Grace Bible Study / 수 7시 | LIFE 모임 / 주일 8시

담임 목사 / 우시환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 (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7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에서 15분 거리

유재부 담임목사  
 유남부 담임목사  
 유소 (David) 박부 담임목사  
 유영 (Yoon) 김부 담임목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A.  
 안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25, (978) 944-2404  
 www.loveth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US GTF 월드 링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진리 말씀 배우하며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영혼예배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타협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 신용카드 결제,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신용카드사 공인업체 **이선호**  
**781.266.7245**

**ecosolar** 친환경 세라믹 코팅

##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인체에 유해하고 중금속 및 PFOS를 포함하지 않은 자사 자체 개발 세라믹 코팅은 내열성에 도달한 온도를 저감시켜 부엌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듭니다.

특징: 1. 친환경 세라믹 코팅 2. 내열성 3. 내열 충격에 강함 4. 내열 충격에 강함 5. 내열 충격에 강함 6. 내열 충격에 강함

가격: \$219

**NEW** 냉생장은 **쿠팰**

생선, 고기 굽는 냄새가 역겨운 사람들을 위한 조리기...  
집안에 음식냄새가 잔잔히 배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리기...

**HEALTH COOKER**

전골 코펠

사각 그릴코펠

**해방 되십시오!** \$90 → \$75

혹시 냄새 역겨운 기체 집안에서 광분 구워요

50% 할인

보스톤코리아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BOKO MART**

주문 전화 **617-955-9112**  
[www.BoKoMart.com](http://www.BoKoMart.com)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 호르몬 변화에 무너지는 중년 여성들, '폐경기 3대 질환' 주의해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폐경기 여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변화 겪지만 치료에는 소극적인 경우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여성은 일생 동안 총 세 번의 큰 호르몬 변화를 겪는다. 첫번째는 초경을 시작하는 사춘기, 두번째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시기이며, 세번째는 월경이 중단되는 폐경기다. 특히 평균 51세에 나타나는 폐경은 난소가 기능을 다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고혈압, 골다공증, 수면장애, 우울증 등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성훈 과장은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가벼운 오한이나 두통, 기억력 감퇴, 관절통, 허리통증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이상증세를 겪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혈관·비뇨생식기·신경계·근골격계 및 정신건강에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의 이상 징후가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 고혈압, 골다공증, 우울증 같은 변화,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

① 폐경기 고혈압 : 고혈압은 뇌졸중·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데, 여성들은 특히 폐경을 겪으면서 고혈압 고위험군으로 급격히 접어든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폐경 전에는 혈압이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상승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고혈압성 심장병 발병 추이'에 따르면 40대 이전까지는 남성의 유병률이 높지만 40대에 이르면 남녀 비율이 비슷하고, 50대부터는 여성의 유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폐경기 고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망막질환, 신장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정기적인 혈압 체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골다공증 :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바로 골다공증인데,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다. 보통 30대까지는 골량이 최대로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줄어드는데 폐경이 되면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 형성에

필요한 칼슘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는데 난소 기능 상실로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줄어들면 뼈가 분해되는 양이 뼈 생성량보다 많아지면서 뼈 밀도가 감소한다. 특히 폐경 이후 1년 정도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폐경기에는 평소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 섭취에 신경 써야 하고, 비타민D 섭취를 위해 고등어, 연어 등과 같은 식품섭취 및 적절한 야외 운동을 해야 한다.

③ 우울증 : 폐경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우울증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은 그저 우울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데, 우울증의 경우 명백한 정신질환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은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늘고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상실감, 분노 등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는 물론 가족과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폐경기 우울증이 있을 땐 망설이지 말고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초기증상의 경우 약물치료를 시작하

면 2개월 이내에 완치도 가능하다.

### 생활습관개선 및 정기검진 필수 ... 증상에 따라 호르몬 치료도 고려해야

폐경기에는 기본적으로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면 좋는데, 계단 오르내리기나 빠르게 걷기 등은 고혈압 예방과 골밀도 강화에 도움이 된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유량이 높은 콩아마씨 등을 섭취하거나 비타민D와 칼슘 함유량이 높은 유제품·시금치·연어·고등어 등을 먹는 것도 폐경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이나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경우 약물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성훈 과장은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 또는 자궁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호르몬 치료의 경우 약물의 종류와 특성이 다른 각각의 치료제를 개인별의 증상에 맞게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HAPPY**

#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꽃꽂이를 더하는 화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나산 유기견식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미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시간문의	617-492-8300
아동보호	617-637-123
아동학대	617-418-2000
알코올/마약	800-792-5200
여성학대	617-445-1500
온전연허	617-248-0922
펠러	617-351-4500
자원봉사	617-348-8500
적십자	800-522-8086
전화신청 (Verizon)	800-564-1234
전화교정선교 (Verizon)	800-941-9900
택시	617-555-1515
AAA	617-343-4475
FBI	800-222-4357
MBTA	617-741-5533
NSTAR가스	800-392-6100
NSTAR 전기	800-572-9300
RCN케이블TV/전화	800-592-2000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신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회협회	857-998-7043
재미인협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종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0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턴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턴 감리교회	781-459-6479
보스턴 사랑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444-2404
보스턴 새생명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617-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한울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턴시온성교회	617-686-5526
보스턴인식교회	978-758-4541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279-3270
보스턴웨슬리안교회	781-933-7044
보스턴 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턴 제일교회	508-435-4579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458-2733
보스턴 중앙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안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산인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워싱턴 연합교회	978-53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간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정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전차/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978-210-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순옥유니버시티	508-734-044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유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782-3109
이경애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멘탈(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멘탈(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턴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임나경심리상담사	508-728-0832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켄지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에서 일할 분 구함**

렉싱턴 소재 세탁소에서 테일러와 셔츠프레스 그리고 어셈블리 하실 분 구합니다.

- 테일러: 1명 풀타임/파트타임
- 셔츠프레스: 1명 풀타임
- 급여: 협상 후 결정

\* 경험자와 영어 가능자 특별 우대

연락처: 617-319-413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청소하실 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T. 617-504-8283

웨슬리 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978-995-3725

렉싱턴소재 한국식당 (한식/일식) 풀타임 웨이트레스/웨이터 구함.  
T. 781-860-0171 (Kay)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샵 튜터링

**Nabis Studio**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BC, SBS, KBS, MBC, OCN, etc.



# 애니메이션 '서울역' 예고편 공개 실사 '부산행' 능가하는 긴장감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 '서울역'이 메인 예고편을 최초로 공개했다.

8월18일 개봉하는 영화 '서울역'은 의문의 바이러스가 시작된 서울역을 배경으로, 아수라장이 된 대재난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애니메이션이다.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대감 속에 관객들의 기대감을 받아온 '서울역'이 드디어 메인 예고편을 통해 베일을 벗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서는 세계적 비주얼 마스터 연상호 감독의 공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서울역이라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중심지를 배경으로 집을 나온 소녀 혜선(심은경 분)과 그를 보호하는 남자친구 기웅(이준 분), 그리고 딸을 찾아 거리로 나선 아버지 석규(류승룡 분)의 모습이 그려진다.

을 노숙자로 오인하는 경찰, 감염자 군중선 등은 '부산행'과는 또 다른 매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돼지의 왕' '사이비' 등 전작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했던 연상호 감독이 '서울역'에서는 어떤 뜻다른 이야기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연상호 감독은 '서울역'을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기획한 후 '서울역'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부산행'을 연출했다. 울림을 뜨겁게 달궜 두 영화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을 매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부산행'이 현재 무서운 속도로 흥행 중에 있어, 국산 애니메이션 '서울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영화 흥행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 '서울역'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폐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일반 관객들에게 공개된다.

여기에 서울역을 배회하는 노숙자들, 혜선

aluem\_chang@news1.kr



## '부산행', 전대미문 신드롬 포인트 3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이 신드롬 현상을 낳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족도 100%의 영화로 사랑 받고 있는 '부산행'이 관객들을 사로잡은 영화 속 포인트 3가지를 되짚어 본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부산행'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다.

1. 우리나라에선 흥행할 수 없는 소재?...주변의 우려를 딛고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전대미문 비주얼

처음 '부산행'이 제작 될 당시 기대 반, 우려 반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대형 상업 영화에서 시도 되는 '감염'이라는 소재는 기존 할리우드 영화에선 많았으나 한국에선 전대미문의 시도였던 것. 제작진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소재인 만큼, 부끄럽지 않은 비주얼로 관객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곽태용 특수분장 감독은 "감염 자체가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감염자의 모습을 심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이미 서양 감염자들의 비주얼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양적으로 접근할 때 어떠한 느낌이 필요할까 많이 고민했다"며 완벽한 비주얼을 완성시키기 위해 기했던 남다른 노력을 전했다. 감염자들 비주얼 뿐만 아니라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의 속도감, 숨막히는 액션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자극이 됐다.

2. 극강의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스토리... "오락성 뛰어넘는 사회적 메시지"

'부산행'이 올 여름 대한민국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유는 단연 오락성과 대중성, 그리고 그 안에 사회적 현상을 담은 메시지까지 골고루 갖춘 웰메이드 블록버스터였기 때문이다. 예측불허의 전개와 스토리, 그리고 스틸까지 담은 이야기는 열

차의 속도만큼이나 빠른 전개로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영화의 오락성만큼이나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는 팝콘 무비 그 이상의 영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목이 됐다. 열차에 탑승한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 군상들의 이기심과 이타심, 집단주의 등 사회적인 현상을 다룬 이야기는 영화에 대한 입문문을 자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부산행'은 오락 블록버스터라는 장르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돌아보는 사회적 현상을 만들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3. 극한의 재난 속 살기 위한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 배우 군단의 압도적인 연기"

'부산행'에서 열연한 주연 배우들의 열연은 영화 흥행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실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관객들이 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의 표현이 중요했다.

연상호 감독은 "짧은 시간 급박한 상황에 다치면서, 사람들은 각자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는 작은 모티브에서 변화된다.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관객들이 악인을 보면서 '정말 나쁘다'는 느낌보다도 '내가 저 상황에서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라는 감정이 주어져야 영화가 리얼리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촬영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만큼 영화 속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은 평범한 캐릭터였다. 연상호 감독은 한 사람의 영웅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어나갔다. 이처럼 영화 속 다양한 연령층의 캐릭터들은 관객들에게 완벽하게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 극한 재난 속에서 살기 위한 사람들을 연기한 대한민국 초호화 배우 군단들의 압도적인 연기 및 감정 이입은 관객들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aluem\_chang@news1.kr

## '사임당' 이영애 · 송승헌, 사임당과 이겸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이영애, 송승헌이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했다.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극본 박은영/ 연출 윤상호) 측은 28일 사임당 역의 이영애와 이겸 역 송승헌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단아한 자태의 이영애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눈빛과 곱게 다문 입술로 사임당의 올곧은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가지런히 모은 손과 이야기를 담은 듯한 눈빛은 사임당 그 자체로 보인다.

극중 이영애는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

강사 서지윤과 신사임당 1인 2역을 맡았다.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 일기와 의문의 미인도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그려낸다.

송승헌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이겸의 비밀과 슬픔을 드러냈다. 이겸은 어린 시절 운명적 만남을 통해 평생 사임당을 마음에 품고 사는 남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한편 '사임당, 빛의 일기'는 오는 10월 SBS에서 방영된다.

ppbn@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7월 18일 ~ 2016년 7월 24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9.9%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4.2%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9.7%
4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19.4%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7.4%
6	KBS1	KBS9시뉴스	17.3%
7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5.5%
8	KBS2	해피선데이	13.6%
9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3.6%
10	KBS1	전국노래자랑	13.0%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4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5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6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7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8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9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0	tN	금토드라마(굿 와이프)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Day Day (Feat. 박재범)	BewhY
02	Why So Lonely	원더걸스
03	너 그리고 나 (NAVILLERA)	여자친구
04	Forever (Prod. By GRAY)	BewhY
05	I Like That	씨스타
06	CHEER UP	TWICE
07	Shut Up (Feat. 유희열)	언니쓰
08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09	맘 편히 (Comfortable)	사이먼 도미닉
10	니가 알던 내가 아냐 (Prod. By GRAY)	사이먼 도미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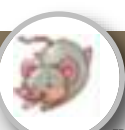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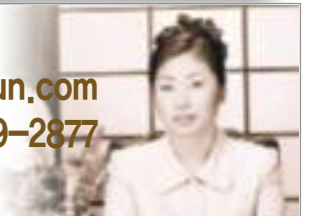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2		7	5	4	8	
		8					5	9
				8		6		
						3		4
9	6		5			8		1
7	4							
		7		9				
4	8					1		
	5	1	8	3		7		

7월 31일 - 8월 6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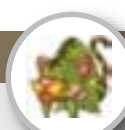
### 쥐띠 | 매사에 심사숙고한 후에

● 운수: 안전제일주의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무리라고 느끼는 일을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돈이 빠져나가기 쉬운 시기이니 특히 금전거래와 관련된 일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매사에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 애정: 이성간이나 부부간에 말다툼이 예상되니 조심하세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먼저 상대를 배려해주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 소띠 |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 운수: 잘 풀리지 않는 일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스스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나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습니다. ● 애정: 그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주었던 상대도 달라집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 6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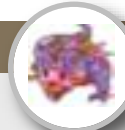
### 범띠 | 주어진 상황에 맞게

● 운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금전: 모든 일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찾다보면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애정: 서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다하세요.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 토끼띠 | 활기를 띄게 될

● 운수: 진심으로 협력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추진하던 일이 성사되고 금전문제로 의외로 잘 풀리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목돈 마련의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 애정: 인생을 같이 할 배우자와의 만남의 기회가 옵니다.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1, 5일 길일. 4,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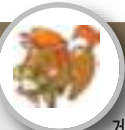
### 용띠 | 빨리 관계개선을 해야

● 운수: 언행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도록 하세요. 구설이나 어려운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금전: 지출하기 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주의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애정: 애정이 식었다고 느끼는 부부나 연인은 애정회복에 신경을 쓰고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관계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점점 더 둘 사이가 멀어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1, 6일 길일. 4,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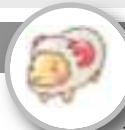
### 뱀띠 | 순조롭게 풀리고

● 운수: 부진했던 일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 금전: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되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이익이 따라옵니다. ● 애정: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좋은 인연과 연이 닿아서 만남이 시작되는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기대해볼만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4, 5일 길일. 31,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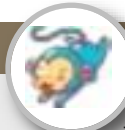
### 말띠 | 이득을 보게 되는

● 운수: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과 정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출장이나 여행을 가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오래 끌어오던 미수금도 해결되고 이득을 보게 되는 길한 운세입니다. 단, 예상치 않은 일로 약간의 지출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서로가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1, 5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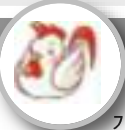
### 양띠 | 더 나은 결과를

● 운수: 꾸준히 노력하고 집념으로 밀어붙이면 어려운 일도 성사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뜻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시도해보세요. ● 금전: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 애정: 아직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4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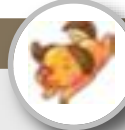
### 원숭이띠 |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 운수: 가까운 곳보다는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이 많아지고 상황이 호전될 것입니다. ● 금전: 일보다 먼저 계산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 애정: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아직은 마음의 문을 열기에는 이르니 좀 더 생각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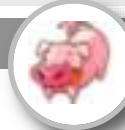
### 닭띠 |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

● 운수: 변동수가 보입니다. 변화를 주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세요. ● 금전: 수입은 점점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단, 친구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새로운 이성으로 인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훗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사랑에 충실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3일 길일. 31, 1일 주의.



### 개띠 | 철저한 정보수집부터

● 운수: 실제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보이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정보수집부터 해야겠습니다. ● 금전: 동업은 다시 생각하세요. 단독투자는 무난한 편이나 합작투자를 하면 소득도 없고 위험합니다. ● 애정: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앓이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망감으로 갈등도 깊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 돼지띠 | 멋진 미래가 펼쳐지는

● 운수: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은 거의 성사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향상되고 멋진 미래가 펼쳐지는 희망적인 때입니다. ● 금전: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줄어듭니다. 점차적으로 금전상태는 여유롭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좋아하는 타입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이성관계에서 행운이 따라주는 시기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

# '무도-무한상사' 초호화 라인업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MBC '무한도전'의 '무한상사'가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기 전부터 초호화 라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은희 작가와 tvN 드라마 '시그널'로 인연이 있는 배우 김혜수와 이재훈이 '무한상사' 출연을 확정지었고, 이외에도 그룹 박빙 지드래곤과 영화 '곡성'의 일본배우 쿠니무라 준도 라인업에 거론됐다. tvN 드라마 '미생'의 대리팀이었던 배우 김희원과 전석호 등도 출연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무한상사'의 화려한 라인업이 아니다. 드라마 '싸인'과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와 그의 남편 장항준 감독이 의기투합하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것이 우려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초호화' 혹은 '역대급'으로 수식되는 '무한상사'가 이들과 함께 블록버스터 급의 장르물로 변주된 '무한상사'를 보고 즐기는 것은 시청자들로서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되는 '무한상사'의 스케일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점점을 찍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에 더 화려한 라인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전처럼 멤버들끼리 모여 다시 언제든 상황극의 묘미를 살리던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무한상사'의 묘미는 포맷의 무한 변주 가능성에 있기 때

문에 그 변화나 규모의 확장이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걱정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초호화 라인업으로 얼마 만큼 기획 의도를 살리고 완성도를 낼 수 있느냐일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 '해피투게더' 현아 "나는 흥도 끼도 없다"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현아가 스스로 끼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KBS2 '해피투게더 3' (이하 해투) 녹화에는 현아, 용준형, 송원근, 이수민, 박승건이 참여했다.

현아는 '패왕색(애니메이션서 유래된 말로 좌중을 압도하는 색시함을 뜻하는 신조어)'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무대 위에서 강렬한 퍼포먼스와 뇌쇄적인 매력을 뽐내왔다. 그러나 이날 현아는 '패왕색'이라는 별명을 무색케하는 말을 쏟아냈다. 그는 "나는 흥도 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장 모든 이가 원성을 터뜨리자

현아는 "내가 말하면 깨는 스타일"이라며 과하게 털털한 입담을 뽐냈다.

현아의 절친 용준형 역시 영풍한예능감으로 관심을 모았다. 보이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은 "데뷔 8년 차인데 엄마가 TV 좀 나오라고 해서 '해투'에 나왔다"며 '집승돌'이라는 야성적인 닉네임에 걸맞지 않는 수줍음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해투'에서는 현아, 용준형, 송원근, 이수민, 박승건의 화끈한 입담뿐 아니라 최고의 흥부자를 가리는 '전국 흥신기왕자랑'이 펼쳐졌다

hjk0706@news1.kr

## '라디오스타' 강타 "H.O.T 재결합 가능성? 조심스럽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강타가 출연해 전설로 남은 1세대 아이돌 H.O.T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 직접 밝힌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H.O.T가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 SM 이사 겸 H.O.T. 멤버 당사자가 언급할 진실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강타는 최근 진행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녹화에서 'SM 이사'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MC들에게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사를 해서"라고 아재 개그로 맞받아쳐 웃음을 안겼다.

특히 강타는 잭스키스의 재결합에 관해 묻는 MC들에게 "잭스키스 재결

합 부럽죠"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이후 H.O.T.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 묻자 "아직 디테일하게 협의된 게 없어요"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라고 신중하게 재결합에 대한 의견을 밝혀 모두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Korean speaker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True World Foods is a leading food wholesaler delivering fresh related products to restaurants throughout New England. We ar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s and need a rep who can speak Korean, but who is also competent in English. The job starts at 6am Monday through Friday (work a half day every other Saturday). Need to maintain customer accounts and opening new accounts, visiting customers. Should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with a relatively clean driving record, adequate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and familiarity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would be a plus.

Compensation will be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abilities. Benefit package and/or green card sponsorship may be availa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테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mailto: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G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박사후세출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mailto: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냥' 안성기, '아저씨'를 능가하는 '영감'의 위력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안성기가 영화 배우로 활동한 지도 어언 59년이 됐다. 영화계에서 늘 존경받는 선배이자, 탁월한 연기력의 소유자인 그는 현장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 영화 '사냥' 현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노장의 힘을 과시하며 젊은 배우들마저 따돌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체력과 근성을 자랑했다. "적당히 좀 하지.."라는 후배들의 눈총이 있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니 현장에서의 모습이 눈에 훤히 드러난다.

영화 '사냥'(감독 이우철)에서 안성기는 사냥꾼 기성을 연기했다. 우연히 발견된 금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든 엽사들과 목숨 건 추격전을 벌이는 인물이다. 딸처럼 아끼는 양순이(한예리 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기성은 16시간 동안 지독한 추격전을 펼친다.

탐욕에 눈이 먼 엽사들은 기성과 양순을 잡기 위해 쥐 잡듯이 산 속을 뒤진다. 금을 차지하기 위해 '입산 금지'라는 팻말을 내걸었지만 갑자기 등장한 방해꾼들이 이들에겐 반가울 리 없다. 가장 처음 이들을 발견한 건 양순의 할머니. 우연한 사고로 엽사 무리는 할머니에게 큰 부상을 입혔고 이 모습을 기성이 목격하게 된다. 그때 할머니를 찾는 양순까지 등장해 일이 꼬일대로 꼬이고 만 것이다.

산에 오르기 전, 그저 크게 한몫을 챙기려던 목적이 있었던 이들은 산 속에서 피 튀기는 추적이 이어지면서 내면 깊숙한 곳의 탐욕과 욕망, 생존본능을 끄집어낸다. 점점 더 악랄하게 변해가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엽사무리의 모습에서 일그러진 인간의 내면을 만날 수 있다.

uu84@news1.kr



###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아이가 다섯         |
| 2  | KBS |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 3  | MBC | 다시시작해          |
| 4  | KBS | 별난가족           |
| 5  | MBC | 좋은사람           |
| 6  | KBS | 여자의 비밀         |
| 7  | KBS | 당신은 선물         |
| 8  | KBS | 당신은 선물         |
| 9  | KBS | 가화만사성          |
| 10 | CJ  | 굿와이프           |

###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디스코 |
|---|-----|-----|

###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사냥 | 안성기, 조진웅 |
|---|----|----------|

## 양세형 "박나래, 이자 없이 1억 빌려줬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개그맨 양세형이 박나래가 무려 1억원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양세형은 25일 밤 11시10분 방송된 SBS 파일럿 프로그램 '셀프디스코믹 클럽 디스코'에서 박나래의 숨겨진 미담에 대해 "자숙 기간 대출이 안 됐는데 박나래가 큰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양세형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 정도로 돈을 줬다"며 무려 1억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자 없이 빌려줬다"고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나래는 곧이어 양세형과 대화를 나누는 문자를 공개했다. 입금 전에는 박나래를 떠받들다가 입금 후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박나래를 놀리는 내용이였다.

MC들이 박나래에게 "동료들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나?"라고 문자 박나래는 흔쾌히 "그럼요"라고 답했다.

ppbn@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card, TBO

##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on@bostonpremierrealty.com

## LISTINGS

- 1. Full-Plant 아파트 : 옥상정원, 주차, 무공해 아파트 \$1,399,000 **SOLD**
- 2. Full-Plant 아파트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305,000
- 3. Full-Plant 아파트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89,000
- 4. Full-Plant 아파트 : West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0,000
- 5. 코네티컷 스토어 : 8000제 위치, \$40,000
- 6. 코네티컷 스토어 : Normal에 위치, \$70,000
- 7. 보스톤 코트 하우스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8. 아파트 : 701 Hammond St, South End, Brooklyn \$5,400 **RENTED**
- 9. Single-family : 02 Willow park, Woburn **SOLD**
- 10. Condo : 60-1 Summer street 1st-2nd floor **SOLD**
- 11. Multi-family : 05-05 Fisher St., Boston **SOLD**
- 12. 아파트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5,100 Sq. Ft. Oak St, Boston **SOLD**
- 14. Condo : 47 Homer ave Unit 8-3 Cambridge **SOLD**
- 15. Condo : 47 Garden St, Unit 11 Allston **SOLD**

## NEW LISTINGS

<p><b>오피스</b> 12-14 Silby St, Unit 600 Cambridge 2 Bed 2 Bath, 현대적 인테리어 Rent includes heat, hot water, sewer removal, one assigned parking, 24시간 입주 가능 <b>월 \$3,000</b></p>	<p><b>오피스</b> 11 Hibbert St, Lexington Single Family 3Bed 1Bath <b>월 \$2,700</b></p>	<p><b>오피스</b> 999 Parker St, Unit 27B East Boston, Loft style 1Bed, 좋은위치, 자연채광에서 1분 <b>월 \$2,400</b></p>	<p><b>세탁소</b>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락리한 매출 <b>Asking \$180,000</b></p>	<p><b>비즈니스 리스</b> 61 Union Square Scarsville, 1,400sq.ft. <b>월\$2,500 + NNN</b></p>
<p><b>Single Family</b> 6 Swan Way Easton 4Bed 2.5Bath 1,000 sq.ft., 1.7 Acre Out-to-eat lot, <b>UNDER AGREEMENT</b></p>	<p><b>델리&amp;컨비니언스</b> 좋은위치 성업중 <b>Asking \$120,000</b></p>	<p><b>일식당</b>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b>Asking \$190,000</b></p>	<p><b>컨비니언스 스토어</b> Cambridge에 위치 <b>Asking \$140,000</b></p>	<p><b>비즈니스 론도</b> Brookline 현대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b>Asking \$509,000</b></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55회

# 60년 지기 시누님을 보내시며...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지난 7월 중순쯤에 미국에 사시는 시고모님께서만 여든셋을 맞이하시고 세상과 이별을 하셨다. 남편과 사남매를 두셨는데 지금은 고모부께서도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다. 고모가 돌아가신 것도 정확히 잘 모르는 채 장례식을 마쳤다.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서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고모님의 덕을 많이 보셨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27년 전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 하던 추수감사절에도 시고모님 댁에 가서 맛난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왔던 기억이 있다. 세 아이를 키우며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럽다.

우리 시아버님께서 69년도에 미국에 먼저 오시고 가족들은 70년도에 이민을 오셨다고 한다.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타국 생활에서 삼남매들은 어린 시절의 꼬물꼬물한 추억이 고모네 가족인 고종사촌들과의 빛바랜 고운 추억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이번 시고모님의 소천 소식은 가족들에게 매우 서운한 일이었으며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연세도 연세거니와 치매로 몇 년을 정신을 놓고 계셨었다. 자식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아

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어머니의 병간호에 얼마나 버거운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파져 온다.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계시지만, 해마다 한 번씩 미국에 자식과 손자들을 보러 다녀 가시는 시어머님께서 6월에 있었던 손자 녀석의 법대 졸업식에 참석을 못 하셨기에 못내 서운해하고 계셨던 터였다. 그 이유는 시아버님께서 미국 오시기 전에는 철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처음에는 태권도 사범이셨다고 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 무리했던 허리가 팔순을 넘긴 연세에 무리가 왔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허리디스크 시술을 5월에 받으셨다. 그런 이유로 시어머님께서 오신다던 졸업식에 못 오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고모님의 소천 소식으로 시어머님께서 어떻게 오실 수 있으시려나 생각하고 있었다. 시아버님의 시술 후의 간호도 하셔야겠기에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터였다. 우리 시어머님의 연세도 올해로 만 여든 한 살을 맞이하셨으니 한국에서 미국까지 13시간의 비행시간이 쉽

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편을 사이에 두고 60년이 다 된 세월 동안의 시누이와 올케라는 그 끈끈하고 깊은 정어린 가족관계가 여든의 나이를 넘고 긴 비행시간의 힘들음을 넘어 시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배웅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신 것이다.

사실 처음 어머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오신다는 말씀에 당신 연세도 많으신데 인사만 전해드리고 계셔도 좋으시련만 오신다고 하실까 싶었다. 그것은 13시간의 긴 비행시간도 그러하거니와 당신도 많으신 연세에 돌아가신 고모님을 보시게 되면 더욱 마음 우울해지지 않을까 싶은 염려의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례식을 마치며 참으로 많은 생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염려의 마음은 그저 젊은 우리들(아들과 며느리)의 생각이었음을 말이다. 6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의 시누이와 올케라는 정든 시간의 정리가 필요하셨던 것이다.


시고모님과 이별을 하시며 시어머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 속에는 그 긴 세월 동안의 시집과의 애증의 삶의 실타래들이 얽히고설켜 필름처럼 지나갔으리라.

참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을 두고 가족이 되어 만난 인연 말이다. 우리 어머니의 흘리시는 눈물을 곁에서 지켜보며 며느리인 나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그 비친 모습에 나 자신을 넣어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모두가 떠나가는 이의 이별보다 남아 있는 나 자신의 이별이 슬프고 자기 설움에 우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면서 말이다.

27년 동안의 나의 결혼 생활에서 내 가슴에 남는 고운 시댁의 풍경 중의 하나는 우리 시어머님께서 시댁 가족들께 정성을 다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심이었던 아니면 의무였던 간에 내게 남은 시어머님의 모습은 늘 정성이 가득하셨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매년 크리스마스 날에는 시댁 조카들과 친정 조카들의 선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우리 시어머님의 그 정성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60년지기 시누님을 보내시며 흘리시던 시어머님의 눈물과 이별 앞에서 나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고마움을 깨닫는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리더의 조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날이 습하다.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 하지만 비를 내리는 필요하다. 세상이 너무 말랐다는 말이다. 비는 오는듯 마는듯, 이따금 먼지만 잠재우는 듯 싶다. 앞마당 잔디가 노랗게 타들어 간다. 비야 내려라. 날만 가뭄이 아니다. 인재人材도 가뭄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빌게이츠가 말했다. 어려운 일은 게으른 사람에게 시킨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도자의 몇가지 유형이다. 똑똑하며 부지런한 형. 똑똑하지만 게으른 형. 별로 똑똑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한 형. 미련하고 게으른 형. 부하를 지독하게 고생시키는 건 세 번째 지도자 유형일게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을 말한다. 내 생각이다. 이상적인 지도자의 유형은 아마도 똑똑하면서도 일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시키는 유형일게다. 두번째 유형이라 해야 겠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일을 꿰뚫어 볼수있는 능

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게 다 인게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 비非호감 미국 대통령이 카터였다는 걸 말이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같았다. 대통령 일직에 카터는 두툼한 서류뭉치를 들고 퇴근했다고 했다. 집에서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다반사였다고도 했다. 일이 많아 고생했을 게다. 하지만 그의 시간과 정력을 너무 엉뚱하고 자잘한 일에 허비한 듯 싶다. 그는 부지런하고 열심이기는 했다만 투자한 시간과 정력은 그의 자리에 비해 사소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쓸데없이 부지런하지 말지니. 당신도 힘이 들것이고, 당신의 주위사람들도 괴로울 것이다.

초한지楚漢志에 나온다. 유방劉邦이 그의 수하장군 한신에게 물었다.

- 유방: 나 유방은 얼마나 많은 군사를 통솔할 수 있겠는가?

- 한신: 10만의 군사  
- 유방: 그럼 자네는?  
- 한신: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 유방: 오잉, 내가 당신의 주군인데, 당신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 한신: 주군은 나 한신을 부르고 있다.

이야기가 이어진다. 유방劉邦의 말이다.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은 장량과 소하와 한신같은 부하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보다 낫다.' 항우는 오직 범증만을 곁에 두었는데, 그마저도 내쳤다.' 한마디로 항우는 너무 잘난 인물이었다. 흔히 말하는 엄친아였다. 좋은 집안 출신에, 현철한 용모와 체격과 힘이 대단했던 거다. 지도자의 요건은 다 갖췄다는 말이다. 그에 비하면, 유방은 농민 건달 출신이었다. 군주가 되기에는 언감생심, 감히 꿈도 꿀수 없었다. 현대, 역사는 유방의 품에 중국천하를 안겼다. 아니, 유방이 스스로 중국대륙을 손에 넣었다. 그는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용인술만은 중국을 통일할 만도 하였다.

고려말 길재의 시조 한수를 나눈다. 그 많은 인물은 다 어디로 갔느냐. 왕조가 무너지니, 인겔도 살아졌는가. 걸출한 인물이 없어, 왕조가 무너졌던가.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겔은 간 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吉再, 오백년 도읍지를)

왕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울리는 건 쉽지 않은데, 넘어가는건 한 순간이라는 말이다. 곧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웬바르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야 할텐데. 새로 뽑힐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다. 내 목줄도 그이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아, 걱정이야. 그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해, 장자방이나 소하같은 인재를 부릴 수 있을 건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10)



**보스턴 건스테드 카이로프랙틱**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Dr. 건스테드의 정통 카이로프랙틱 철학을 이어 받은 보스턴 건스테드가 개원을 기념하여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원기념 스페셜**  
 ★★★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 7월18일- 8월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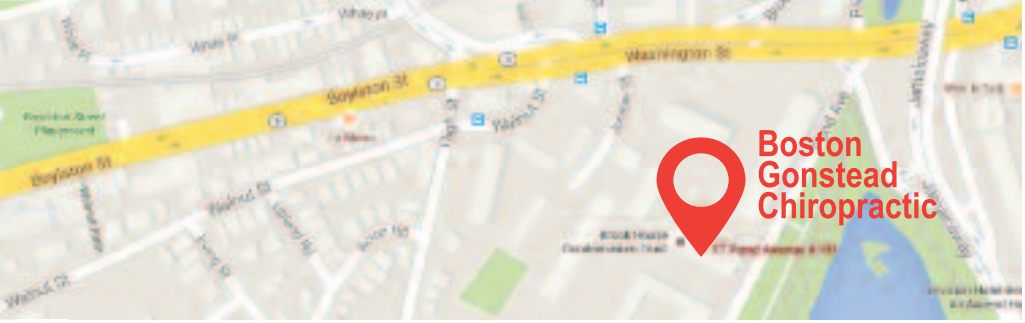
**일반보험, 학교보험, 유학생보험  
 메디케어, BCBS, Tufts, 등  
 각종 보험 접수**



**진료과목**

- **척추계통**  
급성 목 / 허리 염좌 및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통증
- **신경/순환 계통**  
손발 저림, 방사통, 만성 통증,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 직장 / 운동 관련 사고**
- **학생 / 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bostongonstead@gmail.com  
 Web: www.bostongonstead.com

**Tel. 617.277.0648**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6. 기숙학교를 통한 인디언 동화정책 (5)

### 버펄로 이야기

여기서 잠깐 버펄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버펄로라는 이름이 흔히 쓰이고는 있으나 대평원지역(Great Plains)에 살고 있는 들소들은 바이슨(Bison)이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한다. 유럽인들이 처음 미대륙에 왔을 때에는 4천만 마리의 들소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백인들이 서부로 진출해옴에 따라 인디언들이 패망의 길을 걸었듯이 들소들도 멸종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내몰렸다. 들소들이 철도나 도로 교통에 위협요소가 될 우려가 높으므로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인디언들을 광활한 사냥터를 버리고 지정된 주거지역으로 몰아넣기 위한 목적으로 들소 박멸 운동을 벌였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곧 들소를 죽이는 것은 인디언들의 식량원을 차단하는 의미와 같으므로 간접적으로 인디언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들소는 평원 인디언에게 식량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들소가 없이는 평원에서 유목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살기 위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들소 사냥꾼들 사이에는 "버펄로 한 마리를 죽이면 인디언 열 명이 죽는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들소퇴치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들소사냥을 위한 특별열차를 운영하였다. 열차가 철길을 따라 운행하다가 들소가 서식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늦추어 승객들이 직

접 총을 쏘아 들소들을 넘어뜨리는 관광 상품을 판매했었다. 무차별적인 들소 사냥으로 들소의 개체수가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는데 뒷날 국립공원 내에서의 보호동물 지정 등을 통한 종 보전사업 덕분에 다행히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현재 옐로스톤국립공원 내에 약 4천 마리가 살고 있으며 캐나다의 우드 버펄로 국립공원(Wood Buffalo National Park)에 약 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 밖에 약 50만 마리의 들소가 식용 들소 고기를 얻기 위하여 목장에서 가축으로 사육되고 있다. 영화 '늑대와 춤을(Dances with Wolves)'에 나오는 들소 떼들은 이러한 목장에서 사육된 들소들을 동원하여 촬영한 것이



<미대륙 들소(Bison)>



<들소 해골 무더기>

다.

미국인디언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Indians)

칼라일 학교를 구심점으로 하여 여러 인디언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싹트기 시작한 범인디언주의(Pan-Indianism)가 구체화되어 인디언협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의사, 간호원, 법률가, 교육자, 목사, 공무원, 인류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인디언 지도자 50명이 오하이오 콜럼버스 시에 위치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모여서 1911년 10월 12일 콜럼버스 데이에 이 협회를 발족시켰다. 본부를 워싱턴에 두고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협회지를 발간하였다. 1913년에는 정회원이 230명으로 늘어나고 준회원이 400명에 달하는 등 협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동 협회는 인디언의 날 제정을 청원하여 콜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초로 인디언 날을 선포하도록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24년에 인디언시민권법이 통과되어 드디어 인디언도 생물학적 사람에서 법률상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23년에 협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1944년에 조직된 인디언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가 출범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2011년 콜럼버스 데이 주말을 택하여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일환으로 인근의 뉴야크

에 있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인디언들의 호프웰(Hopewell) 문명유적(Newark Earthworks)을 상징적인 의미로 방문하기도 하였다.

### 인디언시민권법(Indian Citizenship Act)

1924년 6월 2일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미국정부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만 찰끔찰끔 인디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도스 법에 따라 부족 토지를 할당받고 부족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인디언에게 시민권이 주어졌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인디언들도 시민권을 받았다. 시민권이 없는 인디언은 부족의 법을 따르는 부족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처럼 취급되었다. 미국정부와 네이션(nation)이라고 불리는 부족국가간의 관계는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조약(treaty)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인디언시민권법은 모든 인디언에게 부족국가 국민여부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법의 발효일 전에 태어난 인디언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40년 국적법(Nationality Act) 제정으로 이 제한은 해제되었다. 모든 인디언이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일부 주에서는 늦게까지 인디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애리조나는 1948, 그리고 뉴멕시코는 1962년에 와서야 인디언에게 선거권이 허용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39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할 당시에는 지방에 현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서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화랑도들은 단순히 절경의 명산이나 수려한 대전을 찾아서 심신을 수련하고 기예만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특명을 받아 군현을 순행하면서 지방 관리들에게 업무지침 하달이나 지방의 행정과 군사의 동태를 파악하여 왕실에 보고한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옥진공주의 누이는 금진인데 또한 위공의 딸이다. 범흥대왕을 섬겼으나 아들이 없었다. 대왕이 죽자 문상敍上에 머물러 살았다. 남모가 처음 해를 당했을 때, 남도들이 받들고자 했으나 태후가 허락하지 않았다. 구리지仇利知공과 몰래 정을 통하여 토함공을 낳았는데, 극히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일찍 낭적郎籍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때 부제로 삼았다. 태후가 궁중에 불러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비랑속공比梁叔公보다 못하지 않고 아름다움은 벽모孀母보다 나으니, 인재를 얻었다고 축하할 만하다" 했다. 공 또한 토함공을 심히 사랑하여 거거를 반드시 함께 했다. 금진남주가 곱하게 여겨 공을 축복했다.]

위공은 이화랑의 아버지 위화랑이고 1세 풍

월주이다. 위화랑의 정처는 준실부인인데 위화랑은 오도부인과도 정을 통하여 옥진과 금진을 낳았다. 이 오도부인은 제21대 비처왕(소지왕)과 선혜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오도부인이 낳은 두 딸 옥진과 금진 모두 범흥왕의 후궁이었으나 옥진은 나중에 박영실과 결혼하였다. 금진공주는 범흥왕이 죽은 후 문천敍三 상류지역에서 살았다. 원화 준정이 남모공주와 서로의 미모를 질투하고 더 많은 남도들을 차지하여 원화의 위세를 세우려다가 준정이 남모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남도들이 금진을 원화로 받들고자 했지만 지소태후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위화랑공을 초대 풍월주로 하는 화랑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모기강' 상류에 홀로 살던 금진은 구리지공과 정을 통하여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토함공과 사다함공이다. 구리지는 아버지가 비랑공인데 그는 벽화부인177)의 미모가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못이꾸면서 만날 궁리를 하다가 그녀가 가는 측간에서 기다리곤 하였다. 결국 그들은 측간에서 사통을 하였고 이어지는 통정으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구리지'이다. 뒷간에서 태어났기에 그의 이름도 구리지라고 보는 견해가 학계의 중론이다. 이 구리지가 금진과 통정을 하여 낳은 아들이 토함이다.

토함은 어릴때 부터 수려한 외모에 출중함이 지소태후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일찍이 화랑도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그를 부제로 삼을 것을 명했으며 할아버지 비랑에 버금가는 장부임을 칭찬하였다. 또한 그의 수려함은 할머니 벽화에게서 왔다고 칭찬하면서 인재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다. 화랑도 중에서도 굳게 일학같은 토함공은 풍월주 이화랑의 사랑도 풍성히 받으면서 화랑도를 함께 이끌었다. 토함공은 이화랑의 조카이다. 즉 아버지 위화랑의 손자이다. 그리고 토함의 동생 사다함은 미실의 연인으로 미실과 함께 신라 향가 2수를 남겼다.

177) 제21대 비처왕의 후궁으로 비처왕이 당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의 미모에 반해 경주에서 영주까지 평민의 복장으로 여러 번 찾아갔다가 결국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은 여인이다. 벽화를 데려올 때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靈 (령)

“그러므로 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赦)하심을 얻되 성령(聖靈)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And so I (Jesus Christ) tell you, every sin and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not be forgiven.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人子)를 거역하면 사(赦)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Anyone who speak a word against the Su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anyone who speak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either in this age or in the age to come. 마태복음 12:31,32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엘리트층들이 계속 탈북한다.

2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북한 남학생이 (駐) 홍콩 한국영사관을 조용히 들어와 신분보호를 받고 있다.

군(軍)관련 배경을 가진 탈북자가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27일 보도에 이어 홍콩에서 영재급 학생의 탈북보도가 나온 것.

청소년이 혼자서 해외에서 탈북(脫北)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한국공관엔 탈북희망자가 2명 이상일 것이란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28일 “18세 전후의 북한 남학생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홍콩과학기술대회에서 열린 제57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Olympiad)대회에 참가했다가 1주일 전에 북한 대표단을 이탈해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학올림피아드에서 북한은 남학생 6명을 출전시켜 종합점수 168점으로 6위에 올랐다.

109개국 602명이 참가, 역대 최대규모의 대회에서 미국이 214점으로 1위, 다음으로 한국이 207점으로 2위, 204점을 올린 중국이

3위를 차지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의하면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로 보인다”고 홍콩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의 규모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콩 명보는 “한국 총영사관은 탈북자들의 진입(進入)이 북한을 자극해 보복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염려해 홍콩정부에 공관 보호를 요청하고 탈북자의 사진과 신분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 총영사관이 있는 건물 안팎에는 홍콩경찰관소속 ‘대테러 요원들’과 사복경찰들이 배치돼 영사관 출입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7일엔 홍콩의 ‘빈과일보(蘋果日報)’가 “군(軍) 배경을 가진 탈북자(脫北者)가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신청을 했다”며 “이 탈북자의 가족 중 고위 북한군 간부가 있을 수 있으며 40대 또는 50대의 군 관련 인사라는 설(說)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정부 관계자는 “홍콩총영사관에 탈북자가 들어 온 것은 맞다”며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때 까지 탈북자의 숫자와 신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2015년에는 섬나라 EU(유럽연합) 회원국인 몰타(Malta)에서 북한 근로자가 탈출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28일에 밝히기도.

북한 노동자가 유럽에선 폴란드(Poland)에 800여명이 일하는 것을 비롯,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수입은 2~3억 달러로 알려졌다.

靈령 : 神也신야 - 신령령. 이 령자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雨우 : 水蒸爲雲降爲雨 : 수증위운강위신 = 비 우 ② 口구 : 口 : 人所以言食인소이 언식 - 입 구 x 3 = 口口口...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대표한다. ③ 巫무 : 事無形以舞降神者 사무형이무강신자 = 무당 무.

이 3개 부분이 합쳐 靈을 구성한다.

① 비 우(雨)는 “물(水:수)을 상징한다. 이 물은 곧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신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 “이 물을 먹는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요한복음 4:13:14.

이어 예수님은 이 땅위에서 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ID(신분증)을 밝히시기를 “하나님은 령(靈)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 God is Sp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the truth.” 요한복음 4:24.

성경에 성령(聖靈)이란 표현이 39번, 그중 시편 51편 11절, 에스겔서 1:20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약, 마태복음 1:18부터 요한계시록 22:17까지 37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반면 령(靈)은 ① 욥기 33:4절을 비롯 ② 시편 143:10, ③ 이사야 28:6 ④ 스가리아 4:6 ⑤ 요한복음 4:24 ⑥ 고린도전서 2:11, 3:16, 15:44 ⑦ 고린도후서 3:17 ⑧ 디모데후서 1:7 등등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靈이시니 모든 지상(地上)의 인간들은 “예수님의 靈水(영수)를 따라가는 길”만 다를 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6.”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티보**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 전담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위대장 내시경 당일 통시검사 시행
- ◎ 1:1 에스코트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의 시술 및 판명
-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 신속한 외래진료 법인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 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결과 및 영양상담과 과거 검진결과와의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12월 31일迄까지

### 기본검진 프로그램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b>[50세이상]</b> 55만원 → 48만6천원 신장계측, 체지방분석, 안압측정, 안저, 시각, 청각, 폐기능, 흉부촬영(흉선, 유선, 흉선도, 흉벽촬영, 흉선촬영,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혈액검사, 암-갑상선종양, 암-항암치료, 고지혈증, 요산, 고혈당지표, 골밀도, 자궁내막,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 복부, 유방, 소변, 대변검사, 기생충, 피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찰(구강질환, 치과우식증, 치과예방진) 4차검진 <b>[50세이상]</b> 67만원 → 60만3천원 50세이전 기본검진 + 신장검사 1 (계산상 흉부 CT 또는 심장초음파)	<b>[50세이상]</b> 69만원 → 63만1천원 신장계측, 체지방분석, 안압측정, 안저, 시각, 청각, 폐기능, 흉부촬영(흉선, 유선, 흉선도, 흉벽촬영, 흉선촬영,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혈액검사, 암-갑상선종양, 암-항암치료, 고지혈증, 요산, 고혈당지표, 골밀도, 자궁내막,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 대퇴, 대직, 소변, 대변검사, 기생충, 피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찰(구강질환, 치과우식증, 치과예방진) 4차검진, 핵심진료분야(내과, 소아,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영상학과, 핵의학) 4차검진 <b>[60세이상]</b> 69만원 → 62만1천원 50세이전 기본검진 + 골밀도, 자궁초음파

###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b>신장내시경 정밀검진</b> 1. 소화기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 100만원 → 90만원 2. 심장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00만원 → 90만원 3. 뇌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0만원 → 135만원 <b>방사선정밀</b> 1. 알코올 : 50세이전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아키레스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VT-D 2. 포괄적정밀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심장촬영CT → 300만원 → 270만원 50세이전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아키레스 DNA,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저선량 흉부 CT	<b>신장내시경 정밀검진</b> 1. 소화기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 110만원 → 99만원 2. 심장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10만원 → 99만원 3. 뇌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4만원 → 139만원 <b>방사선정밀</b> 1. 알코올 : 50세이전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아키레스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VT-D → 220만원 → 199만원 2. 포괄적정밀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심장촬영CT → 320만원 → 289만원 50세이전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아키레스 DNA,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저선량 흉부 CT

### 속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480만원 → 432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헬식),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알코올 : PET-CT 6. 핵의학정밀 : 경동맥,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촬영CT 8. 영양정밀 : 영양조류, 전립선초음파 9. 기타 : 변질촬영, 치과 X-선촬영	600만원 → 460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헬식),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알코올 : PET-CT 6. 핵의학정밀 : 경동맥,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촬영CT 8. 영양정밀 : 인유무통배아키레스 DNA, 자궁 초음파, 유방초음파 9. 기타 : 변질 촬영, 치과 X-선 촬영

★ 토요일엔 : 매일 2회, 4매주 토요일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검진센터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G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ru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1) 누가 이기나?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오래전 내기를 걸었습니다. 상금은 100만 불입니다. 상대는 뉴욕에 있는 투자회사인 프로티지(Protégé Partners)라는 회사입니다. 내기(Betting)한 것은 "10년 동안 투자해서 누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인가?"입니다. 내기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었고 남은 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종목 단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벵가드(Vanguard)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주식규모로 큰 50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0개 회사는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엑산 모빌, 존슨 & 존슨, 제너럴 일렉트릭(GE), 순위로 이루어집니다.

프로티지 회사는 현재 운용 중인 헤지펀드 5곳을 선정했습니다. 프로티지 회사는 각 헤지펀드를 선정할 때 당연히 이름있고 경험 많은 주식 전문가가 운용하는 헤지펀드를 선정했을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큰 부자들만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종목입니다. 운용하는 투자

금은 최소 빌리온(Billion) 단위입니다. 풍부한 자금력과 함께 펀드매니저는 회사 주식 선정을 도와주는 주식분석가(Stock Analyst)와 함께 유망한 주식을 선정해서 투자합니다. 헤지펀드 5곳의 이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참고하면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펀드매니저도 없습니다. 주식시장 변함을 예상하여 사고팔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 5개의 헤지펀드는 펀드매니저와 주식분석가의 도움으로 유망한 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8년까지의 결과는 벵가드 인덱스 펀드는 65.7%로 상승했지만, 헤지펀드는 21.9% 상승했습니다. 무려 43.8% 차이입니다.

헤지펀드가 인덱스 펀드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몇 회사에 집중투자해야 하고 선택한 몇 개의 회사는 '주식 대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헤지펀드는 미리 알고 주식시장에서 현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식시

장에서 남은 2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한 순간에 주식시장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흔히 하는 투자 실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친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식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누군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연히 주식 폭락을 예측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바닥이었을 때 투자했다는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식 최고점과 최저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다른 투자 실수는 유망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도사(?)가 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는 자신이 대박 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연히 일시적으로 한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장기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해서 얼마간의 수익을 만들면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상

식의 기본인 기회 경비(Opportunity Cost)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간 주식시장의 실제 수익률(S&P 500 Index)을 계산하면 50만 불이 130만 불로 불어나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같은 기간 80만 불만 증가해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투자했다면 80만 불이 아니라 130만 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고 합시다. 회사 상품, 경영진,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하지만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물론 투자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 전문가가 운용하는 헤지펀드도 주식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금 100만 불은 이기는 사람이 보조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도와주는 소녀 그룹(Girls Inc. of Omaha)은 큰 희망을 품어도 좋을 듯합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생애 첫 주택 구입 전 알아야 할 것들

처음으로 내집 장만에 나선 김미정(27 가명)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부모님과 살면서 열심히 월급을 모았지만 미처 신용 점수까지 챙기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모으는데만 신경을 썼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신용점수가 높지 않아서 이자율을 최저로 받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정도 더 기다리면서 신용 점수를 쌓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은 감정적으로 틀러 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며 "주택 구입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요 과정을 미리 숙지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내집 마련에 나서기 전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본다.

### 신용 점수 확인부터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용 점수다.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용 점수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면 신용 보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 이 때는 신

용 기관에 직접 연락해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현재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모든 신용 카드의 사용 대금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고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신용 점수에서 납부 기록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예산을 정해라

신용점수 확인이 끝났다면 다음은 예산을 세울 차례다. 가장 정확히 자신의 예산을 정하는 방법은 대출 은행으로부터 예비 승인 서류를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월 공과금을 포함한 대출 납부금이 자신의 세전 월급의 36%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집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먼트 외에도 주택 상태를 정밀 검사하는 홈 인스펙션과 클로징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클로징 비용에는 주택 가치 감정, 타이틀 보험,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통 1만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

###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는다

집을 살 때 반드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성은 복잡한 주택 구입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제시카 라우츠 조사 및 연구부 디렉터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그룹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밀레니엄 세대(1980년 이후 출생자) 가운데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입하는 비율이 기존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가 정보를 얻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학자금 대출, 불확실한 경기 등으로 경제력이 약하고 집값은 오른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 입장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를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이 구입하려는 주택의 판매자를 동시에 대변하는 '듀얼 에이전트(Dual Agent)'인지 확인하는 게 좋으며, 이 경우 에이전트는 양쪽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 구매 제안서(오퍼)는 전략적으로

자신이 그리던 꿈의 집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구매 제안서, 즉 오퍼를 제출하는 일이다. 구입 가격을 제안할 때는 최근 주변에서 팔린 주택 가운데 크기와 구조, 리모델링 상황 등이 비슷한 매물을 비교 분석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구매 경쟁이 심한 지역이라면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해 일부 조항(Contingency)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구매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 곳이라면 클로징 비용을 판매자에게 요구하거나 판매 가격을 낮추는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구매자 입장에서 오퍼를 제출할 때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겠다는 금융 조항과 주택 정밀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집주인과 다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홈 인스펙션 조항 등은 가능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클로징을 앞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클로징을 앞둔 일주일 전과 하루 전 사려는 집을 다시 방문해 직접 점검할 것을 추천했다. 일주일 전 점검은 주택 검사 이후 수리 사항이 있을 경우 집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하루 전 점검은 판매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집이 파손된 곳이 없는지, 냉장고나 조명 등 집 판매와 함께 전달되기로 약속된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클로징을 앞두고 약이틀 전 구매자는 연방주택국(HUD)의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 즉 주택 구입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클로징을 앞두고 자신의 에이전트와 대출 은행, 타이틀 회사에 연락해 모든 서류가 제대로 준비 됐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

칸 영화제에서 쏟아진 전세계의 극찬과 환호!  
올여름 사상 최악의 재난과 맞서라!



OFFICIAL SELECTION  
OUT OF COMPETITION  
PREMIERE 16-16-16

끝까지 살아남아라



"역대 칸느 영화제 최고의 미드나잇스크리닝 상영작"  
- 칸 영화제 정력 위원장 티에리 프레모 -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수안 송무로 허화군단 일연  
칸느의 송아 세계적 비주얼 마스터 인상호 감독!  
천만 영화 흥행 제작진이 만든 최고의 스케일!

# 부산행

## TRAIN TO BUSAN

공유 | 정유미 | 마동석 | 김수안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ELL C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 7월 28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RAINTOBUSAN-MOVIE.COM](http://TRAINTOBUSAN-MOVIE.COM) | [FACEBOOK.COM/HITKMOVIE](https://www.facebook.com/HITKMOVIE)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상해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합의금 분쟁

"엘사 빌레누바"라는 여인이 길에서 "발레리 트로이아노"가 소유한 차량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발레리가 소유한 차량은 커머스 (Commerce)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빌레누바가 보행자로서 과실률이 50%이상으로 더 높다고 보험사는 판단을 했고 메사추세츠주 법에 의해 트리아노는 과실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정황은, 빌레누바가 두차량이 주차된 사이로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건널목이 아닌)로 들어왔고, 해뜨기 전 어두컴컴한 비오는 아침이었고, 또 그녀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빌레누바에게 \$5,000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1)

트리아노는 위반티켓을 받지 않았고, 빌레누바는 사고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 채, 트리아노를 소송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직전, 커머스 보험사는 유일한 목격자인 마누엘 마티네즈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증언 내용은, 트리아노가 너무 빨리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현장을 그냥 떠났다였습니다. 또, 이른 아침이지만 여전히 밤이었고 여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운전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커머스 보험사는 이 증인이 빌레누바(보행자)의 친구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빌레누바 (보행자)가 영구장애를 입게되었음도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빌레누바 (보행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하이-로 중재 \$5,000 / \$100,000도 거절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증인이 구두녹취를 하기 위해 데포지션에 오고 난 후, 비로소 커머스 보험사는 최고 책임금액인 \$100,000을 제시했습니다. 2) 빌레누바(보행자)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3)

재판당일, 배심원은 \$414,500을 빌레누바(보행자)에게 상해보상금으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과실률을 35%로 판단하였습니다. 커머스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최고금액인 \$100,000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빌레누바(보행자)는 이후 커머스 보험사를 상대로 불공정 보상행위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과정에서 법원은 커머스 보험사에게서 어떤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패소를 명하였습니다.

빌레누바(보행자)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소송을 하기 전, 트로이아노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명확해 졌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최초 제시한 \$5,000은 터무니 없이 낮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빌레누바(보행자)는 구두녹취 후 제시한 \$100,000은 이들이 트로이아노의 책임규모가 \$100,000 이상이었을 알았던 것이고 또한 이전에 제시한 \$5,000이 너무 낮다는 것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항소심에서는 원심확정판결을 했는데, 커머스 보험사의 주장 - 트로이아노의 과실률이 50% 미만이다 - 이 합당하기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 소송제도를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NBC방송 중 유명한 게임 쇼가 있습니다. Deal or No Deal.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

다. 끝까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기면 상금을 다 갖고, 지면 한푼도 못갖고,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행되면서 앞에 놓인 가방에서 공개되는 사실관계를 보면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가자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면 트리아노를 하여 판사나 배심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최종판단을 맡기는 것이고, 중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아 합의를 하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청구의 목적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금전 이외의 것은 주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구속 등) 두째로, 과실이 있어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어느누구도 실질적인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로 성가시게 굴 수가 있어서 성가시게 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을 산출해서 적정선에서 지급하고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함을 전문적으로 노리고 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응하시는 분들의 자유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공식화 하지는 않지만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하여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얼마전 계약분쟁관련으로 대형 업체인 홈디포와 합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pre-trial단계까지 밀어붙여야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서도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대충 얼마 지급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이었으나 일관적인 증

언에 의거, 소송준비를 하고 소장을 보내 준 이후 실질적인 합의가 된 것임을 보면, Deal or No Deal이라는 NBC의 게임 쇼가 제가 일하는 법 분야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것 같습니다.

1) 보험사는 쉽게 말하면 민사 경찰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해 사건조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경찰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고현장조사를 하면서 형사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티켓을 발부하는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험사는 트리아노의 과실률이 50% 미만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빌레누바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을까요?

2) 구두녹취 (deposition) 라는 절차는 민사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당일 판사앞에서 이뤄지는 증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준비 과정에서 증거물 이외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누가 어떤내용을 어떻게 증언하는가에 따라 판사의 판단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목격자의 증언을 소송절차에 따라 확보하고나니, 양쪽의 변호사들이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3) 빌레누바 (보행자)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급 확실하게 \$100,000을 받을 수 있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결정을 제3자인 배심원이나 판사가 하게 되고, 당일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리아노가 소득이나 인컴이 있다면, 이것을 수락하고 종결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법률 종합] 미국에서의 판결,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한국에서 결혼하면 미국에서도 인정 받나요?",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 가서 다시 이혼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빚을 갚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 재산이 있다던데 미국에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고 미국에 등도 보지도 못한 미시시피 주에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대응을 안해서 지면 그냥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다보니 한국과 미국 간 법적 분쟁이나 어느 한 나라에서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나라에서 내린 판결이나 승인을 인정하고 집행해주겠다고 조약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가입국들로, 이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미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되며, 반대로 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무조건적" 적용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사 소송법에 따르면,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해당 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 명령등을 적절하게 송달받았거나 피고 본인이 직접 소송에 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대한민국과 해당 미국법원사이에 상호보증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전부 충족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판결이 대한민국법원에서도 승인 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혼 신고와 같은 법적 계약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미국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경우 한국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혼녀가 보스턴에서 6개월 거주 후 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메사추세츠 주 법상의 거주무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이혼 소송 자체가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메사추세츠 법원이 "실수

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한국 법원은 메사추세츠 법원이 관할권이 없으므로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패소한 피고가 소송에 대한 서면, 기일통지서, 명령등을 적법절차에 맞게 받아서 답변을 했거나 적어도 소송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여성이 메사추세츠 주 대신 거주무기간이 짧은 네바다 주에 가서 남편 몰래 소송을 하고 소장을 전달하지도 않은 채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국 법원은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소송에 대해 소송을 건 원고는 소송장을 피고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의 사실에 대해 알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재판을 권력재판이라고 하며 이러한 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의 결혼 신고가 가능한 메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은 커플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메사추세츠

주의 결혼신고는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상대 국가에 가서 해당 결정을 집행해달라는 법원 신청을 통해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말을 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보시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국에는 재산이 전혀 없지만 미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송의 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주에 가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100505593845027

#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본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 기업 고객

-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수송
- 이민법
- 임대법, 임차법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손해
- 상법
- 채권, 상속, 유언
- 수송
- 이민법
- 임대법, 임차법 관계법
- 지식 재산권
- 타겟, 지역 범위 관련 업무
- 파산
- 강변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MANHATTAN New York	HORRNETT New Jersey	WASHINGTON DC	FLUSHING New York	EDISON New Jersey	SAN DIEGO California	SEOUL Korea	HANGZHOU China
-----------------------	------------------------	------------------	----------------------	----------------------	-------------------------	----------------	-------------------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턴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턴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풀타임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 II. SAT, ACT 실전문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목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2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